

INSS 연구보고서 2020-9

# 2020 INSS Research Report

## ISIS의 미디어 전략과 테러 담론

박보라

INSS 연구보고서 2020-9

ISIS의 미디어 전략과 테러 담론 | 박보라

# 2020 INSS Research Report

INSS 연구보고서 2020-9

# ISIS의 미디어 전략과 테러 담론

박보라 borapark@inss.re.kr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0 인스토피아 빌딩  
Tel. 02-6191-1000 Fax.02-6191-1111 www.inss.re.kr

비매품/무료  
9 4 3 4 0



9 791189 781347  
ISBN 979-11-89781-34-7  
ISBN 979-11-89781-03-3(세트)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 INSS  
Research  
Report

---

INSS 연구보고서 2020-9

---

**ISIS의  
미디어 전략과  
테러 담론**

---

박보라

# ISIS의 미디어 전략과 테러 담론

박보라

## 박보라 (朴保羅)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범죄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헤다야센터(the Hedayah Center for Countering Violent Extremism)의 Counter Extremism Hub 회원이다. 관심 연구 영역은 테러리즘과 대테러정책, 폭력적 극단주의와 대응(P/CVE), 테러 내러티브 및 테러목적의 인터넷·ICT 기술 악용, 극우주의 및 극우테러, 인질협상, 마약·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이며, 주요 역서 및 논문으로는 『신원관련 범죄에 대한 유엔핸드북(공역)』, 『미국의 경찰활동(2021년 출간 예정)』, “극단주의에 관한 연구: 극단주의 테러범의 심리를 중심으로”, “ISIS 이후 주요국의 대테러정책 변화와 시사점”, “MENA지역 유출 이주민 유형분석과 적용”, “범죄예방적 접근을 활용한 경찰의 테러예방활동” 등이 있다.

# 목차

국문초록	6
<b>I. 서론</b>	<b>8</b>
1. 연구 배경과 목적	9
2. 연구 방법과 구성	16
<b>II. 이론적 배경</b>	<b>20</b>
1. ISIS의 등장배경과 변천	21
2. 이론적 논의	27
3. 선행연구의 검토	37
<b>III. ISIS의 미디어 전략</b>	<b>42</b>
1. ISIS의 미디어 조직	43
2. ISIS의 미디어 활용전략	50
3. ISIS의 미디어 전략의 특징	53

<b>IV. ISIS의 주요 테러 담론</b>	<b>58</b>
1. 국가성과 정당성의 재현	59
2. '지하디 쿨'과 소속감의 부여	73
3. 지하드 운동으로의 동원	83
<b>V. 결론</b>	<b>96</b>
1. 연구결과의 종합 및 대항 담론의 구성전략	97
2.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104
<b>Abstract</b>	<b>108</b>
<b>참고문헌</b>	<b>110</b>

## 국문초록

시리아 내 마지막 영토의 상실과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ISIS가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동지역에서의 패되는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의 세력 확장 계기가 되었으며, ISIS가 사용했던 미디어 전략과 테러 담론은 차세대 지하디스트가 주도하는 ‘지하드 5.0’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청년층이 절대적으로 참여하였던 ISIS의 글로벌 지하드 운동은 향후 대테러정책이 소셜미디어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보고서는 ISIS가 발행한 온라인 잡지 Dabiq와 Rumiyah의 내용분석을 통해 주요 테러 담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SIS의 주요 테러 담론은 국가성과 정당성의 재현, ‘지하디 쿨’이라는 하위문화의 형성과 소속감의 부여, 지하드 운동으로의 동원이라는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항담론의 구성 전략도 제시하였다.

### 핵심어

ISIS, 미디어 전략, 테러 담론,  
지하드 문화, 대항 내러티브

## I

##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 2. 연구 방법과 구성

## 1. 연구 배경과 목적

## 가. 연구의 배경

차세대 지하디스트<sup>1</sup>가 테러에 가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 될 것인가? 2001년 9/11 테러<sup>2</sup>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구권 국가는 테러와의 전쟁(Global War on Terrorism, GWOT)을 전개해 나갔다. 9/11 테러 이후 테러공격을 사전에 인지 및 저지하는 정보기관의 활동과 테러범의 위치를 확인하고 물리적 타격을 통해 제거하는 군사적 작전 수행능력은 크게 진전되었으며,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군사력 역시 증강된 것으로 평가된다.<sup>3</sup> 그러나 단순히 테러공격의 사전 인지 및 차단, 테러범의 체포 또는 사살은 테러위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지하드 3.0을 대표하는 알카에다와 지하드 4.0을 대

1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지하디스트’로 통일한다. 이는 지하드(jihad)의 원래 의미인 ‘신앙인으로서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악과 투쟁하고, 선을 행하려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이슬람의 전파 및 수호를 위한 무력 투쟁’을 왜곡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손주영, “급진주의 지하드관의 형성과 발전,”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6권 1집 (2006), pp. 30-31.

2 학문적 용어로서 ‘테러(terror)’와 ‘테러리즘(terrorism)’은 구분되어 사용된다. ‘정치적 목적달성 수단으로써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통해 심리적 충격과 공포를 유발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는 후자인 테러리즘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테러방지법」이나 대테러업무 담당 정부기관에서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테러’라는 단어로 통일되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테러와 테러리즘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으며, 학술적 차원에서만 구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육상,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외국의 입법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6호 (2009), pp. 279-310. 이 연구보고서에서도 ‘테러’라는 용어로 단일화해 사용한다.

3 Larry Greenemeiner, “The Drone Wars: 9/11-Inspired Combat Leans Heavily on Robot Aircraft;,” September 11, 2011,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post-911-military-tech-drones/> (accessed: August 23, 2020).

표하는 ISIS(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이하 'ISIS')<sup>4</sup>가 주도하는 글로벌 지하디즘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테러에 대한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른바 '이슬람국가(the Islamic State)'의 붕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2019년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ISIS가 시리아 최후의 거점을 상실하고, 패퇴하였음을 선언하였다.<sup>5</sup> 같은 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ISIS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사망을 공식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은 '이슬람국가'의 붕괴와 함께 ISIS가 주도한 글로벌 지하드 운동 또한 종료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ISIS에 대한 승리 선언과 달리 전 세계 도처에서 ISIS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게릴라 조직 형태로 회귀한 ISIS는 조직 리더십의 분권화와 조직원의 분산이라는 형태로 조직을 재편하였고, 소모전과 지연전술 위주의 테러공격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나아가 ISIS 연계세력을 통해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지로 활동 무대를 넓혀나가고 있다. 중동지역에서의 패퇴가 오히려 ISIS의 활동 반경 확장의 계기가 된 셈이다. 알카에다와 같은 다른 지하드 조직

과 비교하더라도 ISIS의 영향력은 규모와 범위가 가장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6</sup> ISIS가 수립한 '이슬람국가'라는 체제는 붕괴했다라도, ISIS가 내세운 이념과 운동은 소멸되는 대신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중동에서 ISIS 조직의 축소는 일견 우리에게 당면한 위협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ISIS 세력이 우리와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확장 추세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테러에 안전한 환경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필리핀의 경우 시리아 등지에서 이탈한 ISIS 외국인테러전투원(FTFs: Foreign Terrorist Fighters)이 대거 잠입한 국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의 진압작전에 의해 사살된 ISIS 연계 조직원 가운데 필리핀에 잠입한 외국인테러전투원 지원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 있었다는 점이 경찰 수사결과 밝혀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종교적인 이유로 필리핀인이 직접 자살폭탄테러를 시도한 경우는 없었으나, 2019년 필리핀인 최초의 자폭테러가 발생하였다. 자폭테러의 배후에는 ISIS의 폭발물 전문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범죄와 테러의 결합(Crime-Terror Nexus)'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마약밀매,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와 ISIS 연계조직이 결합하여 역내 불안을 더욱 가중화하고 있다.

태국 역시 2019년 7월 최초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이용한 ISIS의 세력 확장 시도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인도

4 ISIS는 이슬람 국가(the Islamic State, IS)를 국호로 내세우며 국가 건설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슬람의 본원적 의미를 모독하였다는 점에서 국가를 의미하는 IS 대신 지역에 한정하여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 또는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로 통칭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7년 3월 처음 개최된 반ISIS 국제연대 외교장관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통칭과 조율하는 의미에서 ISIS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남식, "ISIS 3년, 현황과 전망: 테러 확산의 불안한 전조,"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4』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 p. 1. 참조.

5 Jin Wu, Derek Watkins and Rukmini Callimachi, "ISIS Lost Its Last Territory in Syria. But the Attacks Continue". 『New York Times』, March 23, 2019,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9/03/23/world/middleeast/isis-syria-defeated.html> (accessed: August 23, 2020).

6 START Center, "Global Terrorism Database (GTD)™ 2020 Update," <https://www.start.umd.edu/global-terrorism-database-gtd-2020-update> (accessed: July 15, 2020).

네시아 실업층은 정부당국의 대응에 대하여 강한 반발과 불만을 보이고 있으며, ISIS는 이러한 불만을 부추겨 대정부 테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종교활동을 가장한 ISIS의 지하드 이념 전파 등은 중요한 안보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서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5년 이른바 'IS 김군'으로 명명된 내국인 남성이 실제로 시리아 지역으로 이주, '히즈라'의 방식으로 ISIS에 합류한 바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267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들이 ISIS의 모집활동에 노출되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시리아 등지에서 활동한 조직원의 한국행 모색을 우려하는 내용도 함께 보고되었다.<sup>7</sup> 올해 실제 시리아-이라크 지역에서 활동한 ISIS 조직원이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관계당국에 적발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sup>8</sup>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자면, 글로벌 지하디즘은 여전히 진행 중인 현상이며 궁극적으로 종식될 성격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암시된다.<sup>9</sup> 그리고 ISIS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슬람국가'라는 브랜드는 ISIS의 조직 축소로 소멸되지 않고, 향후 차세대 지하디스트에게 테러가 담을 위한 중요한 소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ISIS가

주도한 글로벌 지하드 운동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졌다는 점과 청년층이 조직의 주된 연령층이었다는 점은 ISIS가 사용한 전략, 그 중에서도 테러조직원과 추종자 모집을 위한 선전동전전략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SIS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연령층이 청년층(12-28세)이었다는 점은<sup>10</sup> 향후 대테러정책이 청년층에 더욱 중점을 두고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Z 세대(Generation Z)'로 불리는 이 연령층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어느 연령집단보다 자유롭게 활용하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활용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연령층이다.<sup>11</sup> 또한 폭력적 극단주의의 주요 동인으로 지적되어 온 사회적 불만에 대한 인식은 다른 연령층보다 더욱 높은 연령집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알 바그다디 사후 '지하드 5.0'의 시대는 ISIS가 사용한 테러 담론의 진화와 소셜미디어의 활용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ISIS의 미디어 활용과 테러 담론을 다루는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슬람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ISIS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ISIS의 이념<sup>12,13</sup>과 칼리프 국가론<sup>14</sup>,

7 하채림, "우즈베크 출신 시리아 알카에다 계열 조직원, 대거 한국행 시도," 연합뉴스, 2019. 2. 14, <https://www.yna.co.kr/view/AKR20190214046900108?input=1195m> (검색일: 2020. 3. 21).

8 "Letter dated 20 January 2020 from the Chair of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s 1267 (1999), 1989 (2011) and 2253 (2015) concerning Islamic State in Iraq and the Levant (Da'esh), Al-Qaida and Associated Individuals, Groups, Undertakings and Entitie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United Nations,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848705> (accessed: August 8, 2020).

9 이주성, "미국의 대테러정책과 글로벌 지하디즘," 『중동문제연구』 제17권 4호 (2018), p. 3-4.

10 Vera Mironova, "Who Are ISIS People?," *Perspectives on Terrorism*, Vol. 13, No. 1 (February 2019), pp. 32-39.

11 Richard C. Baffa et al., "Defining and Understanding the Next Generation of Salafi-Jihadis," *Perspective*, RAND Corporation, (2019).

12 서정민, "이슬람국가(IS)의 이종적 이념 구축: 동원과 타자화의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9권 2호 (2019), pp. 101-126.

13 정상률, "Dabiq에서 사용된 용어 분석을 통한 IS의 이슬람주의 담론과 정체성 연구: 구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21권 1호 (2017), pp. 67-103.

14 정상률·이종화, "Dabiq에 나타난 IS의 칼리파제론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5권 제3호 (2015), pp. 1-42.



알카에다와 ISIS의 전략 비교<sup>15</sup>, 지하드 이념<sup>16,17</sup>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ISIS의 종교적 이념과 차별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면, ISIS가 구축한 테러 담론이 어떻게 전세계적인 호소력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또한 ISIS의 미디어 활용을 다루는 연구는 김수완(2015)<sup>18</sup>과 서정민(2016)<sup>19</sup>의 연구가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의 내용 및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범죄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ISIS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ISIS의 범행 수법(modus operandi)에 해당하는 테러공격 양상과 수단 분석이 해당된다. 강영숙(2014)은 ISIS의 테러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테러정책을,<sup>20</sup> 정육상(2015)은 ISIS의 공격수법 분석과 전개양상을 전망하였으며,<sup>21</sup> 이만중(2017)은 ISIS 등장 이후 변화된 테러발생양상을 분석하고 우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sup>22</sup> 김은영(2015)은 ISIS의 소셜네트워크 활용 전략과 영향력을 분석하였지만, 구

체적으로 어떠한 담론이 형성되어 호소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았다.<sup>23</sup> 범죄학 중심의 기존 연구는 ISIS 공격수단과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조직원 모집의 기저에 위치한 테러 담론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나. 연구의 목적

따라서 이 연구는 ISIS가 조직원 모집을 위하여 사용한 미디어 전략과 테러 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써의 프로파간다라는 점을 원용하여 ISIS의 미디어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프로파간다 전략이 ISIS의 미디어 전략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반영이 되었으며, ISIS의 미디어 전략상 특징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전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청년층이 ISIS의 외국인 테러전투원으로 합류하게 된 배경으로 ISIS의 테러담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주로 ISIS의 종교적·정치적 이념을 논의한 데서 나아가 독특한 지하드 문화라는 하위문화를 구성하고, 이를 'ISIS (외국인) 테러전투원'이라는 정체성으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ISIS의 테러 담론에 대항하는 한국의 대테러 담론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테러 담론의 구성과 수립은 앞서 언급진화·폭력적 극단주의 대응(P/CVE)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

15 서정민,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의 이념적 그리고 전략적 차이,"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5권 제2호 (2015), pp. 87-110.

16 박현도, "『아만의 경역』을 넘어: IS의 이슬람국가와 지하드," 『한국과 국제정치』 32권 1호 (2016), pp. 25-50.

17 정상률, "마크디시의 살라피즘과 IS의 살라피 지하디즘,"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6권 제1호 (2016), pp. 151-188.

18 김수완, "IS와 미디어 전략," 『중동문제연구』 14권 2호 (2015), pp. 1-28.

19 서정민, "이슬람국가(IS)의 미디어 전략과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중동연구』 제34권 제3호 (2016), pp. 1-22.

20 강영숙,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조직 IS(Islamic state) 위협실태," 『한국테러학회보』 제7권 제4호 (2014), pp. 7-38.

21 정육상, "테러집단 IS의 위협실상과 향후 전개양상 전망," 『유럽헌법연구』 제18호 (2015), pp. 171-198.

22 이만중, "IS이후 국제테러정세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비," 『한국테러학회보』 제10권 제3호 (2017), pp. 89-122.

23 김은영, "IS의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로파간다의 방식과 영향력 분석 연구," 『국가정보연구』 제7권 2호 (2015), pp. 41-73.

다. 우리나라 역시 2018년 1월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국가행동 계획」을 수립 및 발표한 바 있으나, ISIS 등을 위시한 테러조직의 테러 담론에 대한 대항 논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단계이다. 따라서 가장 세련되고, 전문적이며 완성된 형태라는 평가를 받는 ISIS의 미디어 전략과 테러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테러 담론 구성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다.

## 2. 연구 방법과 구성

### 가.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보고서는 ISIS의 미디어 전략을 살펴보고, ISIS가 제시한 테러 담론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향후 테러와 관련된 홍보·설득 수단의 개발과 전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ISIS의 외국인 테러전투원, 잠재적 지지자들을 통한 테러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유인한 수단인 ISIS의 미디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록 ISIS가 영토를 잃고 그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쇠퇴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테러 전문가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하드 수행과 테러 조직원 모집이라는 'ISIS 2.0 시대'가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테러조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독특한 테러 담론을 구성한 ISI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하드 제인'의 사례처럼 ISIS 이념에의 동조와 조

직원의 모집에 ISIS가 활용한 미디어 전략과 테러 담론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ISIS가 활용한 미디어 전략은 Clarion Project와 Research on Violent Extremism, Hedayah Center 등이 테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ISIS 관련 콘텐츠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테러 담론의 경우 온라인 잡지 Dabiq와 Rumiyah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온라인 잡지인 Dabiq와 Rumiyah를 선정한 것은 첫째, ISIS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였지만 특히 ISIS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완성시킨 것은 온라인 잡지인 Dabiq이기 때문이다. 또한 ISIS가 점령지였던 모술 함락 이후 Dabiq의 발간을 중단하고 발간한 Rumiyah 역시 Dabiq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록 일부 대테러 연구소 및 관련 재단에서 연구 목적으로 ISIS의 테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ISIS가 생산한 전체 메시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슬람 국가'로서의 테러 담론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원자료의 획득이 가능한 것이 바로 Dabiq와 Rumiyah이다. 셋째, 다른 테러조직과 달리 영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제작되었다는 점, '잡지'라는 미디어의 특성을 이용해 전 세계 각지의 ISIS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토대였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조사원의 성실성과 식별력, 상호간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책임자와 조사원은 코딩 전 사전 회의를 통하여 가이드라인 구성과 주요 개념 등을 숙지하였고, 중간 점검과 코딩 종료 후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변수를 선별하였다. 특히 Dabiq와 Rumiyah 원본을 대상으로 연구책임자와 조사원

이 불일치하거나, 의문이 생긴 변수 등은 관련 학계의 자문을 통해 수정과 재코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일차적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활용 빈도를 살펴보는데 사용되었다.

## 나. 연구의 구성

이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인 서론은 연구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다룬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다룬다. ISIS의 태동과 변천, 이 연구보고서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기술한다. 제3장에서 ISIS의 미디어 전략을 분석한다. ISIS 미디어 전략의 기본 전제와 주요 미디어 조직을 파악하고, 미디어 활용전략 등을 논한다. 제4장은 ISIS의 테러 담론을 다룬다. Dabiq와 Rumiyah의 내용분석을 통해 ISIS가 제시한 주요 담론들을 국가성과 정당성의 재현, ‘지하디 쿨’이라는 독특한 하위문화의 형성과 소속감의 부여, 지하드의 동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나눠 해당 주제의 구성과 재현방식을 분석한다. 담론 분석은 상징, 재현, 서사구조 등을 다루는 정성적 방법과 주요 용어의 사용유무를 계산하는 정량적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제5장은 제2장과 제3장에서 다룬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ISIS의 미디어 전략과 테러 담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항 내러티브 구성 시 고려사항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다루고자 한다.

# II

## 이론적 배경

1. ISIS의 등장배경과 변천
2. 이론적 논의
3. 선행연구의 검토

### 1. ISIS의 등장배경과 변천

#### 가. ISIS의 등장 배경

2014년 6월 이라크 제3의 도시인 모술(Mosul)은 ISIS에 의해 장악되었다. ISIS는 모술 장악을 통해 주목을 받았지만, ISIS의 등장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은 아니다. ISIS가 등장하고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대테러 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24</sup>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정책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처럼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으로 변모하였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대테러정책 구상을 하나씩 공개하며,<sup>25</sup> 알카에다 진압을 위한 국제동맹군을 결성하였다. 또한 ‘악의 축’으로 설정된 이라크 후세인 정부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작하였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 승인 없이 개시되었다는 점에서 명분을 잃기는 했지만,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은 손쉬운 승리를 가져왔고, 그 결과 후세인 정권은 붕괴되었다. 하지만 후세인 정권의 붕괴 이후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종파적 갈등과 보복이 지속되고, 이라크 내 민주정부와 효율적인 정부군 구성이 실패하면서 권력의 공백을 틈탄 지하드 조직이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 이라크 내부의 상황은 테러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이라크가 등장하게

24 ISIS의 발현과 전개 과정은 미국의 대테러 정책 전개와 관련되어 살펴봐야 한다는 중간검토회의 외부 검토자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린다. 또한 Shadi Hamid, William McCants and Rashid Dar, “Islamism after the Arab Spring: Between the Islamic State and the Nation-State,” *The Brookings Project on U.S. Relations with the Islamic World U.S.-Islamic World Forum Papers 2015*, (The Brookings, 2017) 참조.

25 2001년 9월 16일 캠프 데이비드 연설, 11월 3일 바르샤바 회의 연설, 2002년 1월 ‘악의 축’ 발언, 6월 1일 웨스트 포인트 연설 등이 해당.

된 원인으로 작용한다.<sup>26</sup>

부시 행정부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이 남긴 부수적 피해와 피로감에 주목, ‘비폭력적 다원주의’ 전략을 대테러정책으로 채택하게 된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발생한 관타나모 수용소의 인권침해와 이라크 전쟁 후속조치에서 제기된 전쟁의 정당성 문제, 그리고 테러의 기저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테러와의 전쟁이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의 대두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테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급진화(radicalization)와 폭력적 극단주의(violent extremism)를 지적하고, 급진화·폭력적 극단주의의 차단 없이는 대테러정책의 효과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ountering Violent Extremism, CVE)’이라는 개념 하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대신 역내 환경개선 및 거버넌스 확충을 통해 지하드 이념에 경도되는 것, 즉 급진화와 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대테러정책을 수정하였다.

2010년 ‘아랍의 봄’이 시작되면서 이집트, 튀니지, 예멘 등에서는 성공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의 교체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시리아의 경우 끝없는 내전으로 이어졌으며, 이라크에서는 권력 공백 상태가 악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지하디스트 조직이 가장 큰 수혜자로 작용하게 된다.<sup>27</sup> 글로벌 지하디스트 조직은 빠른 속도로 시리아와 이라크의 권력 공백을 메우기 시작하였으며, 네트워크화된 조직

으로 진화하기 시작한다. 또한 곳곳에 산재한 잠재적 지하디스트를 찾아 나서 포섭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sup>28</sup> 당시 알카에다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추종자를 수월하게 모집하기 위하여 온라인 잡지인 ‘인스파이어(Inspire)’를 제작하여 테러 선동에 활용하였다.<sup>29</sup>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 지하디스트가 중동이 아닌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에 존재하게 하였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알카에다로 대표되는 글로벌 지하드 네트워크가 전 세계로 확장됨으로써 위협의 수준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sup>30</sup> 대테러 정책 변화, ‘아랍의 봄’으로 인한 역내 권력 공백과 알 카에다의 네트워크의 전술적 진화는 ‘이슬람국가’를 내세운 ISIS의 탄생을 위한 바탕이 되었다.

#### 나. 조직의 태동과 변천

ISIS의 기원은 1999년 요르단 출신의 지하디스트 아부 무스압 알 자르카위(Abu Musab al-Zarkawi, 이하 ‘알 자르카위’)가 조직한 ‘유일신과 성전(JTJ: Jama'at al Tawhid wal Jihad)’<sup>31</sup>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SIS의 조직명이 각각 개명되었을 때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유일신과 성전’ 역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유일신과 성전’은 신의 이

26 이주성, “미국의 대테러정책과 글로벌 지하디즘,” pp. 12-14.

27 황병화, “아랍 스프링 이후 중동의 신 극단주의 등장에 대한 연구,” 『중동문제연구』 제15권 1호 (2016), pp. 35-118.

28 이주성, “미국의 대테러정책과 글로벌 지하디즘,” pp. 16-18.

29 Inspire 외에도 The Defenders of the Truth, Gaidi Mtaani, Azan 등 주요 글로벌 지하디스트 조직이 발간했거나 발간하는 온라인 잡지가 있다.

30 인남식, “최근 시나이반도 자폭테러사건과 이슬람 테러리즘의 동향,” (2014), p. 11; 이주성, “미국의 대테러정책과 글로벌 지하디즘,” p. 18 재인용.

31 2004년 故 김선일 씨를 납치, 살해한 단체를 말한다.



를 아래 하나됨을 강조하고, 신앙 고백인 ‘샤하다(shahada)’<sup>32</sup>를 촉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샤하다는 훗날 ISIS의 깃발에도 등장하게 된다. 또한 ‘유일신과 성전’은 폭력적 투쟁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다. 즉 조직의 태동부터 이슬람에 반대되는 사람을 파괴하고 ‘이슬람 국가’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폭력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sup>33</sup>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따른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알 자르카위는 알카에다와 본격적인 연계를 추구한다. 오사마 빈 라덴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자신의 조직인 ‘유일신과 성전’을 ‘이라크-알 카에다(AQI: al Qaeda in Iraq)’로 개명했던 것이다. 당시 알 자르카위와 ‘유일신과 성전’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라크로 이동,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테러훈련캠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유일신과 성전’은 단지 역내에서 테러공격을 자행한 비국가 행위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개시되면서 팔루자 전투를 기점으로 이라크 내 주요 글로벌 지하디스트 조직간 리더십에 변화가 생긴다. 팔루자 전투를 통해 지하디스트 조직의 지도부가 형성되고, 알 자르카위 역시 알카에다와 연계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알 자르카위는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충성맹세와 알카에다와의 연계성을 뚜렷하게 나타낸 조직 개명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가 아닌 알 자르카위 자신의 독특한 지하드 이념과 테러 활동을 추구하였다. 이라크-알카에다는 무엇보다 이라크 내부의 혼란과 불안정을 가져오는데

조직 제일의 목표를 두었고, 이를 위해 외국인 대상 납치와 참수, 시아파 대상 테러공격, 연쇄자살폭탄테러 등을 자행하였다.<sup>34</sup>

2006년 미군 공습으로 알 자르카위는 사망한다. 알 자르카위의 사망은 조직의 지도부의 교체를 가져왔으며, ‘국가’를 선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직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된 ‘아부 아유브 알 마스리(Abu Ayub al-Masri, 이하 ‘알 마스리’)와 ‘아부 오마르 알 바그다디(Abu Omar al-Baghdadi)’가 이라크-알카에다라는 조직명을 ‘이슬람 국가 이라크(ISI: The Islam State of Iraq)’로 개명한 것이다. 또한 ‘무자히딘 수라 카운실’의 활동에도 동참하였다.<sup>35</sup> 하지만 조직명은 바뀌었지만, 당시 ISI의 공격 전술이나 활동은 이라크-알카에다와 큰 차이점을 찾기는 어렵다. 여전히 몸값을 노리고 납치를 저질렀으며 종파간 갈등을 지속하기 위한 자폭테러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라크 각 지역 부족과의 관계 구축 노력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ISI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조직의 대응전략 실패, 미군의 지속적인 공격, 다른 지하드 조직과의 연이은 마찰 등으로 인해 세력이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2010년 알 마스리와 아부 오마르 알 바그다디를 비롯한 주요 지도부가 이라크 정부와 미군의 합동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지도력을 상실하기에 이른다.<sup>36</sup>

2010년 5월 새로운 지도자로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Abu Bakr al-Baghdadi, 이하 ‘알 바그다디’)가 선출된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

32 샤하다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라는 구절로 된 고백이다.

33 Brian L. Steed, *ISIS: The Essential Reference Guide*, (Santa Barbara: ABC-CLIO, 2019), pp. 13-14.

34 서정민, “IS의 형성과 발전,” 『IS를 말한다』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2015), pp. 17-19.

35 Ibid., pp. 19-20.

36 윤민우,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이해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동향,” 『국가정보연구』 제7권 2호 (2014), pp. 13-14.

에 합류하기 위한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대거 이동이 이 시기에 시작된다.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후세인 정권 시절의 군 장교와 정보 요원 역시 ISI에 대거 합류한다. 이전 지도부의 공백은 대체되었다. 인력의 대체는 이라크 소재 교도소 대상 공격으로 이어져, 테러가담 혐의로 수감된 테러전투원들이 탈옥할 수 있었다. 게릴라전을 비롯한 무장공격에 경험이 풍부한 테러전투원들은 시리아로 보내져 연계테러조직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2013년 알 바그다디는 '알 누스라 전선(al Nusra Front)'과의 합병을 알 카에다와 알 누스라 전선 양측에 선포함과 동시에 조직의 이름을 'ISIS(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 또는 'ISIL(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로 개명한다. 그러나 알 바그다디의 일방적인 통보에 알 카에다와 알 누스라 전선은 당연히 반발하였고, 수차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ISIS와 알 카에다는 결국 공식적으로 결별하게 된다.

2014년 6월 알 바그다디는 이슬람 극단주의 이념을 내세운 국가를 선포하면서 조직명을 '이슬람 국가(The Islamic State, IS)'로 바꾸었다. 시리아와 이라크 양국의 북부 지역을 장악한 ISIS는 라까(Raqqqa)와 모술(Mosul)을 실질적인 수도로 운영하면서 폭력적 극단주의의 대표적인 세력으로 자리잡았다.<sup>37</sup> 2015년 12월 이라크 정부군이 라마디(Ramadi) 탈환, 2017년 7월 모술(Mosul) 탈환, 10월 라까(Raqqqa) 탈환에 이어 2019년 3월 시리아 민주군이 ISIS의 마지막 거점인 바구즈(Baghuz)를 탈환함으로써 물리적 영토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sup>38</sup>

37 인남식, "ISIS 3년 현황과 전망: 테러 확산의 불안한 전조,"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4』 (2017), pp. 3-5.

38 "Timeline: The Rise, Spread, and Fall of the Islamic State," Wilson Center, www.wilsoncenter.org (ac-

cessed: May 13, 2020).  
 바구즈 탈환에 대한 보복으로 스리랑카 테러의 배후를 주장하던 지도자 알 바그다디는 2019년 10월 미국의 군사작전에 의해 사망하였고, 2020년 '아부 이브라힘 알 하시미 알 쿠라이시(Abu Ibrahim al-Hashimi al-Quraishi, 또는 이하 '알 쿠라이시')'<sup>39</sup>가 새로운 지도자로 지명되어 ISIS의 잔존세력을 이끌고 있다.<sup>40</sup>

## 2. 이론적 논의

이 연구보고서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써의 ISIS의 미디어 전략과 테러 담론을 다루되, 테러 조직원의 모집을 범죄학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설득 커뮤니케이션과 범죄학의 제반 이론을 분석의 틀로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메시지의 수용자에게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론들로는 인지부조화 이론, 사회인지 이론, 의제설정 이론, 프레이밍 이론들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지하드 전사로서의 정체성 및 하위문화 형성과 관련하여 범죄학의 사회학습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그리고 하위문화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39 2020년 10월 현재 아부 함자 알 쿠라이시로 불리고 있음.

40 <https://cgpolicy.org/articles/isis-2020-new-structures-and-leaders-in-iraq-revealed/> (accessed: May 24, 2020).

## 가. 인지부조화 이론

인간이 자신의 태도와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는 선택하고, 이와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회피한다는 개념은 인지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에 기초하고 있다. 인지부조화 이론에서는 인간들에게 불일치하는 인지가 발생할 경우 인지적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부조화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지부조화 이론의 관점에서는 태도와 신념을 갖게 된 개인들은 이와 일치하는 정보에 더 노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자신의 인지와 불일치 하여 부조화를 야기하는 정보는 회피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sup>41</sup>

미디어가 개인이 이미 가진 신념을 보강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sup>42</sup> 역시 정보에 선택적 노출을 하는 현상에 기초한다. 특히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이용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인간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의 견해에 더 노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43</sup> 인지부조화 이론을 통해 ISIS의 미디어 전략 및 테러담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해본다면,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부조화<sup>44</sup>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슬람 원리주의와 일치하는 정보인 ISIS 미디어 콘텐츠에 더욱

41 Mary Beth Oliver and K. Maja Krakowiak, "Individual Differences in Media Effects," Jennings Bryant and Mary Beth Oliver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Routledge, 2009), p. 607.

42 J. Klapper,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New York: Free Press, 1960).

43 C. R. Sunstein, *Republic.co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44 중동·이슬람권에는 16세기 이전 오스만 투르크 시절의 영광과 번영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선명하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서구권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유럽의 식민지화 및 아랍권에 불리한 국제개입 경험이 발생하였고, 이는 현재 아랍권에 만연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모순 등에 대해 과거의 이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원리주의 행태로 연결되게 된다.

선택적으로 노출되고자 하며, 이러한 선택적 노출은 유사한 의식을 가진 집단(ISIS)과의 연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잠재적 조직원 모집과 추종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ISIS는 Dabiq 등 온라인 매거진을 통해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ISIS 미디어 콘텐츠에 반복 노출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 나. 사회인지 이론

사회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은 행위 주체적 관점에 근거한다.<sup>45</sup> 즉 사람은 외부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내재된 성향의 지배<sup>46</sup>를 받는 단순한 반응을 보이는 유기체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 발전적이고 주도적이며 적극적이며, 자기규제적 존재이다. 따라서 사회인지 이론에서는 인간의 고유한 재능인 상징화 능력, 상징적 커뮤니케이션, 미래 전망 능력, 성찰적 자의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징화 능력은 인간에게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삶의 모든 측면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환경적 사건을 창조하고 규제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 인간의 자기규제는 스스로 정한 도전적 목표에 따라 자신이 지닌 자원, 기술 노력을 동원하여 목표를 수행하는 주도적 통제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유도한다. 자기성찰 능력은 결과에 근거하여 사고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사고를 바꾼다는 것이다.<sup>47</sup> 따라서 ISIS가

45 A. Bandura, "Toward a Psychology of Human Agenc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 1 (2006).

46 범죄의 본성에 대한 논쟁은 Nature vs. Nurture 내용을 참조 바란다.

47 특히 자기성찰적 능력은 잘못된 신념에서 나온 강력한 행위가 종종 잘못된 신념이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회



조직의 이념에 대한 상징을 부여하고, 범세계적 지하드라는 목표를 부여하는 프로파간다를 전파할 경우 이에 동조하는 개인들은 기꺼이 ISIS의 이념에 따라 외국인 테러전투원으로 유입되거나 자생테러를 수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 다. 의제설정 이론

의제설정 이론(Agenda Setting Theory)은 미디어에서 제공된 정보가 메시지의 수용자가 인식하는 현실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다루고 있다.<sup>48</sup> 즉 미디어는 메시지의 수용자가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할 수는 있다는 이론이다. 미디어가 특정한 주제를 반복해서 다룬다면 메시지의 수용자들에게 해당 이슈의 중요성을 부가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주제에 대해 미디어가 주목할수록, 그리고 많이 다룰수록 실제와 다르더라도 수용자가 그 이슈를 중요하게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제설정 이론에서는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자들이 갖는 이념적 편향성 또한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빈슨(Robinson)은 뉴스 미디어들이 갖는 특정 이슈에 대한 편견이 특정한 이념에 대하여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영 및 강조되어 나타남으로써 의제설정 효과를 다

적 환경을 만들어낸다. 이른바 가는 곳마다 공격적 행위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적 성향을 가진 개인들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사회적 현실을 왜곡해서 보여주는 미디어를 참고하거나 비교기준으로 삼아 개인 자신의 사고를 검증할 경우, 인간, 장소, 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공유를 조장할 수 있다. A. Bandura, "Social Cognitive Theory in Mass Communication," Jennings Bryant and Mary Beth Oliver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Routledge, 2009), pp. 125-127.

48 W. Lippman, *Public Opinion*, (Harcourt: Brace, 1922).

르게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랭과 랭(Lang and Lang)은 미디어가 특정 이슈에 대한 프레임을 설정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기호화)에 의해 영향력이 생기며 특정 이슈를 언급하는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미디어의 이와 같은 유사의제 만들기 과정은 '의제구축(agenda building)'이라는 개념으로 체계화되었으며 프레이밍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sup>49</sup>

의제설정 이론은 ISIS가 Dabiq에 실리는 주제 중 어떠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다루고, 잠재적인 조직원 모집에 활용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슬람 국가' 수립 초반부에는 조직의 정당성과 국가로서의 명분을 내세우는 내용이 주요 의제로 설정되며, ISIS 영토가 본격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할 경우에는 현실과는 반대로 ISIS가 사실상 승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의제로 선택하는 것이다.

#### 라. 프레이밍 이론

프레이밍 이론(Framing Theory)은 특정한 사회운동과 관련된 조직이 특정한 의미를 구성·생산·전파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sup>50</sup> 즉 특정한 이념에 대한 지지층의 관심·태도·신념에 대한 메시지를 특정한 프레임으로 구성, 반복 제시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직은 조직의 이념이 반영된 프레임을 통해 잠재적인 지지층의 반향을 가장 잘 이끌어

49 오미영·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이론」(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p. 222-237.

50 A. Dalgaard-Nilsen, *Studying Violent Radicalization in Europe II: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Socio-psychological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2008).

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특정한 사회운동의 준거틀(frames of reference)을 수용하면서 점차 집단행동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sup>51</sup> 결국 프레임은 잠재적인 지지자가 적극 동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틀을 제공하고, 프레이밍을 통해 해당 운동이 제시하는 ‘현실’이 얼마나 그 잠재적인 참여자들에게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sup>52</sup>

프레이밍 이론을 적용하여 ISIS의 미디어 전략을 살펴본다면, ISIS가 의제로 설정한 메시지가 어떠한 특정한 의미를 구성, 생산 및 전파하며, 전파되는 메시지가 추종자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사회학습 이론

서덜랜드(Sutherland)는 사회해체에서 발생하는 규범의 붕괴 상태, 셀린(Sellin)의 문화적 갈등,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사회내 다양한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범죄율과 범죄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sup>53</sup> 서덜랜드는 이 과정을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으로 정의하고, 특정한 개인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을 9개의 명제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개인이 범죄자가 되기 전 거쳐야 하는 ‘학습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 비

관점으로 제기되었다. 차별적 접촉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버제스와 에이커스(Burgess and Akers)는 차별적 접촉-강화 이론을 제시하였다. 차별적 접촉-강화 이론은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개념에 스키너(Skinner)의 학습이론을 결합하여 보다 일반적인 행동이론으로 통합하였다.<sup>54</sup>

에이커스(Akers)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는 직접적인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모방을 통하여 습득된다”. 특정한 행위의 결과로 보상을 취득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경우 그 행위는 강화된다. 하지만 특정한 행동을 취했을 때, 처벌을 받거나 보상을 상실하게 될 경우 앞으로 그 행위는 약화된다. 처벌과 보상의 조화가 차별적 강화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차별적 접촉과 차별적 접촉-강화로 대표되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중대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 불리는 준거집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학습한다. 이때 자신의 행위를 차별적 접촉을 통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수록 불법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sup>55</sup>

51 박보라·장석현, “극단주의 테러범의 심리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보』 제14권 1호 (2018) p.72.

52 Dalgaard-Nielsen, Ibid., 2008.

53 Edwin Sutherland, “White-Collar Crimin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 (1940), pp. 2-10.

54 오윤성, 『범죄 메커니즘의 이해: 어떤 심리가 범죄를 일으키는가?』 (서울: 더센, 2011).

55 에이커스에 따르면 자신의 주요한 강화와 처벌의 근원을 통제하고 자신을 행동모형이나 규범정의에 노출시키는 집단으로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 바. 차별적 동일시 이론

일탈행위의 학습이 반드시 친밀한 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학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시된 개념은 ‘차별적 동일시(differential identification)’이다. 개인이 실제로 일탈적 행위를 야기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일탈적 행위를 하였거나, 일탈적인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일탈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sup>56</sup>

따라서 글레이저(Glaser)는 차별적 접촉보다 역할 이론에 기초한 범죄적 역할과의 동일시를 강조하였다. 글레이저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일종의 역할 수행이며, 범죄 발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적 역할이 왜 선택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적 역할의 선택은 범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관찰·추앙하는 사람과의 동일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추앙하는 사람에 반대되는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써도 동일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실제 그 인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았어도, 자신의 범죄 등 일탈 행위를 용인해줄 것으로 여겨지는 실제 인물이나 가상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범죄행위를 추구하게 된다.<sup>57</sup>

글레이저가 제시한 차별적 동일시는 ISIS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선

56 영화 <친구>를 보고, 조직폭력배인 주인공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급우를 주인공이 사 용한 것과 동일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57 Daniel Glaser, "Criminality Theories and Behavioral Imag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1 (1956) pp. 433-444; 이윤호, 『범죄학』, (서울: 박영사, 2007) p. 307. 재인용.

전·선동활동이 호소력을 가진 이유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 ISIS에 가담한 모든 외국인 테러전투원과 추종자들은 ISIS 조직원을 직접 접촉하여 ISIS의 글로벌 지하드 운동에 가담하거나 지지를 보내게 된 것은 아니다. 자신을 ‘지하드 전사’로써 역할을 설정하고, 이러한 역할 수행이 테러 가담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나아가 글레이저는 차별적 접촉, 차별적 기회구조, 그리고 사회통제를 기초로 차별적 접촉이론이 무시한 기회구조의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통제이론의 요소를 가미하려는 시도로써 자신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을 차별적 기대이론(differential anticipation)으로 재구성하였다. 차별적 기대이론에 따르면, 개인적 범죄성은 특정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자신의 기대감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기대감이란 행위에 대한 상대적 보상과 처벌을 의미하는 인간의 범죄적 또는 반범죄적 사회적 유대, 범죄 행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기술과 태도 및 합리화 등의 차별적 학습, 그리고 범행의 기회와 위험성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때 여기서 실제로 최선의 대안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의 대안에 대한 자신의 기대감을 중요시하고 있다.<sup>58</sup>

## 사. 하위문화 이론

특정한 계층의 비행과 범죄를 구조적 긴장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다른

58 Daniel Glaser, *Crime in Our Changing Society*, (NY: Holt, Reinhart and Winston, 1978), pp. 126-127; 이윤호, 『범죄학』 pp. 307-308 재인용.

하위문화 이론과 달리 밀러(Miller)는 범죄행위를 특정계층의 독특한 하위문화와 규범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접근하고 있다. 밀러는 하류계층의 갱 조직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하류계층 갱의 남성지향적 문화는 오랜 기간 정착되어 온 하류계층 생활전통의 산물이다. 즉,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존재해 온 독특한 문화적 분위기는 그 지역의 하류계층 주민들에게 합법적인 사회질서 내에서 성공에 대한 무관심한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서 개인적인 만족감을 성취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는 그들에게 독특한 일련의 구조적 요소와 그들이 주요한 관심사로 간주하는 복잡한 형태의 관심의 초점(focal concerns)에 의해서 기술될 수 있다.<sup>59</sup>

밀러는 하위문화에서 목격되는 6가지 주요 관심의 초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요 관심은 걱정, 강인함, 영악함, 운명론, 자율성으로 구성되는데, 이 6가지 주요 관심의 초점을 중심으로 독특한 하위문화가 조직화되며, 하위문화적 경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걱정(trouble)은 일탈행위, 법집행기관과의 마찰 등이 문제적 행위로 여겨지는 대신 오히려 정상적이며, 영웅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규범을 준수하는 준법 시민적 자세는 성공한 삶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강인함(toughness)은 무엇보다도 남성성이 중시되는 신체적 강건함, 탁월한 싸움 능력, 무모할 정도의 용감함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영악함(smartness)은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타인이나를 기만하기 전, 내가 먼저 타인을 속이고 기만할 수 있어야 현명하다

59 Walter B. Miller, "Lower Class Culture as a Generating Milieu of Gang Delinquency." in Wolfgang et al. eds., *Sociology of Crime and Delinquency* (New York: John Wiley, 1970), p. 358; 광대경 외,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3), pp. 100-106.

는 태도를 의미하며, 자극성(excitement)은 싸움이나 도박 등의 쾌감과 모험을 즐기는 속성을 뜻한다. 자극성 역시 평범한 준법시민의 일상을 영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운명론(fate)은 현재 내가 처한 이 상황은 운명의 소산이며, 이 모든 것은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성(autonomy)은 외부로부터의 통제나 간섭을 거부하는 속성을 뜻한다.<sup>60</sup>

이러한 하위문화이론은 독특한 지하드 문화를 설명하는데 최근 적용되고 있다.<sup>61</sup> 또한 테러조직의 주요 조직원이 남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남성지향적 하위문화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sup>62</sup> 국제사회 역시 ISIS에 대한 외국인 테러조직원들이 형성하고 구축하는 독특한 하위문화에 관하여 관심의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sup>63</sup>

### 3. 선행연구의 검토

서정민(2015)은 ISIS와 알카에다의 이념과 전략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ISIS가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닌 대안적 국가의 조직과 기능을 보이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양대 조직 간의 이념적·전략적 차

60 Ibid., pp. 14-17.

61 Daniela Pisoiiu, "Subcultures, violent radicalization and terrorism," *Behavioral Sciences of Terrorism and Political Aggression*, Vol. 7, No. 1 (2015), p. 1.

62 Simon Cottee, Jihadism as a Subcultural Response to Social Strain: Extending Marc Sageman's "Bunch of Guys" Thesis,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 23, No. 5 (2011), pp. 730-751.

6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unterterrorism Committee, *Security Council Guiding Principles on Foreign Terrorist Fighters: The 2015 Madrid Guiding Principles + 2018 Appendix*, UNCTED, 2019.

이를 지도자들의 연설문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알카에다가 방어적 개념의 지하디즘을 취했던 반면 ISIS는 ‘타크피르’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지하드 공세에 나서고 있었다. 또한 알카에다는 지하드의 대상이 주로 서구권 국가였기 때문에, 이들 국가를 자극하는 형식의 테러를 저지른 반면 ISIS는 내부 정화를 목표로 다른 무슬림 대상 테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sup>64</sup>

정상률(2017)은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Dabiq의 용어 분석을 통해 ISIS의 이슬람주의 담론과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Dabiq 1호를 주요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ISIS는 칼리파제 국가 즉 이슬람 국가임을 명백히 밝히고, 이슬람 국가의 건설을 위한 극단적 폭력 수행 및 선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담론은 칼리파제 국가 건설을 위한 로드맵으로 나타났다.<sup>65</sup>

또한 정상률과 이종화(2015)는 Dabiq에 나타난 ISIS의 칼리파제론을 연구하였는데, ‘다르 알 이슬람’과 ‘다르 알-하르브’로 구분되는 이분법적 세계관과 ‘다르 알-이슬람’의 확대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주’→‘공동체 형성’→‘우상파괴’→‘합병’→칼리파제 국가 건설 등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하였다.<sup>66</sup> ISIS의 지하디즘을 연구한 박현도(2016)는 ISIS가 아부 바르크 나지의 이슬람국가 건설을 5단계로 발전시켰고, ‘타크피르’

64 서정민,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의 이념적 그리고 전략적 차이,”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5권 제2호 (2015), pp. 87-110.

65 정상률, “Dabiq에서 사용된 용어 분석을 통한 IS의 이슬람주의 담론과 정체성 연구: 구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21권 1호 (2017), pp. 67-103.

66 정상률·이종화, “Dabiq에 나타난 IS의 칼리파제론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5권 제3호 (2015), pp.1-42.

개념과 종말론을 통해 새로운 테러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분석하였다.<sup>67</sup> 정상률(2016)은 ISIS를 조직한 알 자르카위의 지하디즘에 대한 마크디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sup>68</sup> 또한 ISIS의 미디어 활용을 다루는 연구는 김수완(2015)<sup>69</sup>과 서정민(2016)<sup>70</sup>의 연구가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의 내용 및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범죄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ISIS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ISIS의 범행 수법(modus operandi)에 해당하는 테러공격 양상과 수단 분석이 해당된다. 강영숙(2014)은 ISIS의 테러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테러정책을,<sup>71</sup> 정육상(2015)은 ISIS의 공격수법 분석과 전개양상을 전망하였으며,<sup>72</sup> 이만중(2017)은 ISIS 등장 이후 변화된 테러발생양상을 분석하고 우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sup>73</sup> 김은영(2015)은 ISIS의 소셜네트워크 활용 전략과 영향력을 분석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담론이 형성되어 호소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았다.<sup>74</sup> 범죄학 중심의 기존 연구는 ISIS 공격수단과 전략을 중심

67 박현도, “『아만의 경역』을 넘어: IS의 이슬람국가와 지하드,” 『한국과 국제정치』, 제32권 제1호 (2016), pp.26-50.

68 정상률, “마크디시의 살라피즘과 IS의 살라피 지하디즘,”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6집 1호 (2016), pp. 151-188.

69 김수완, “IS와 미디어 전략,” 『중동문제연구』 14권 2호 (2015), pp. 1-28.

70 서정민, “이슬람국가(IS)의 미디어 전략과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중동연구』 제34권 제3호 (2016), pp. 1-22.

71 강영숙,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조직 IS(Islamic state) 위협실태,” 『한국테러학회보』 제7권 제4호 (2014), pp. 7-38.

72 정육상, “테러집단 IS의 위협실상과 향후 전개양상 전망,” 『유럽헌법연구』 제18호 (2015), pp. 171-198.

73 이만중, “IS이후 국제테러정세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비,” 『한국테러학회보』 제10권 제3호 (2017), pp. 89-122.

74 김은영, “IS의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로파간다의 방식과 영향력 분석 연구,” 『국가정보연구』 제7권 2호 (2015), pp. 41-73.



으로 이루어졌기에 조직원 모집의 기저에 위치한 테러 담론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외에서 수행된 ISIS의 Dabiq 관련 연구는 주로 특정한 주제의 재현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ISIS의 아동과 여성의 수동성과 지하드 내의 지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아동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재현의 빈도 및 보조자적 지위, 적의 악행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피해자적인 수동적 지위에서 향후 지하드를 수행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원으로 설정되는 점이 발견되었다.<sup>75</sup> 아동의 재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유사하다. 초기에는 ISIS가 설정한 적의 피해자로서 아동의 모습이 재현되었다가, 영토 축소 및 세력 약화가 이어지며 차세대 조직원으로써 재현되는 모습이 지적되었다.<sup>76</sup> 또한 ISIS의 시각적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Dabiq에 나타난 이미지의 재현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적의 참수 등 처형 모습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Dabiq의 독자층에게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75 Gina Vale, "Women in Islamic State: From Caliphate to Camps," *ICCT Policy Brief* (October, 2019) pp. 1-16.

76 Wojciech Kaczowski,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images of children in Islamic State's Dabiq and Rumiyah magazines," *Contemporary Voices: St Andrews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 No. 2 (2019), pp. 2638.

# III

## ISIS의 미디어 전략

- 1. ISIS의 미디어 조직
- 2. ISIS의 미디어 활용 전략
- 3. ISIS의 미디어 전략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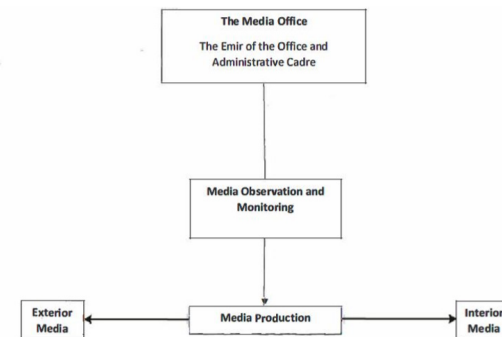
### 1. ISIS의 미디어 조직

#### 가. ISIS 미디어 조직의 구성

ISIS의 통치체제와 유사하게 미디어 조직 역시 중앙 조직과 지역 조직으로 나뉘며, 중앙 조직은 지역 조직에 대한 통제성을 확보하는 수직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역(Wilayāt) 미디어 조직은 대내적·대외적 메시지를 생산하며, 지역 미디어 조직을 통해 생산된 메시지는 중앙 미디어 조직의 엄격한 감독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또한 중앙 미디어 조직은 지역 미디어 조직에게 일종의 보도 지침을 하달하며, 지역 미디어 조직에게 메시지의 세부 사항까지 지시하는 형태를 보인다.<sup>77</sup>

〈그림 1〉 ISIS의 지역 미디어 구조



※ 출처: Daniel Milton, "Pulling Back the Curtain", CTC Report, (Counter Terrorism Center at West Point, 2018), p. 8.

<sup>77</sup> Ahmad Shehabat and Teodr Mitew, "Black Boxing the Black Flags: Anonymous Sharing Platforms and ISIS Content Distribution," *Perspectives on Terrorism*, Vol.12, No.1 (2018).

이른바 미디어 중심성(Media Centrality)라고 정의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은 중앙 미디어 조직이 지방 미디어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첫째, ISIS의 중앙 미디어 조직에서는 지역 미디어 조직의 책임에 해당하는 특정한 주제와 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을 발간, 지역 미디어 조직에 송부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중앙 미디어 조직의 지침은 지역 미디어가 다뤄서는 안 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디어의 역할이 이른바 ‘이슬람 국가’의 현실을 완전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드 사상을 고취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 미디어 조직에 배정된 조직원을 ‘미디어 지하드 전투원(Media Mujahid)’이라는 호칭과 함께 “미디어는 (ISIS의) 지하드 전투원이 자신의 의무를 학습하도록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78</sup>

둘째, 중앙 미디어 조직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 미디어 조직에서 발행하는 테러 프로파간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과 제공하고 지시를 내린다. 「ISIS Files」을 통해 드러난 테러 프로파간다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ISIS의 미디어 조직은 Dabiq 및 다양한 테러선동 포스터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테러선동 비디오와 인질참수 비디오를 공개하기 전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편집하고, 효과적인 배포방안을 토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테러 프로파간다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사소한 것에서 중심 메시지에 이르는 것까지 이른바 ISIS 미디어 전문가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고, 가장 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작되

었다.<sup>79</sup>

#### 나. 중앙 미디어 조직의 구성

알 자르카위의 사망 이후 ISIS는 조직 개편을 통해 ‘알 푸르칸 미디어 재단(al-Furqan Media Foundation)’을 설립, CD·DVD 등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와 팸플릿, 인터넷 사이트용 프로파간다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sup>80</sup>

알 푸르칸 미디어 재단은 ISIS의 미디어 조직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현재는 조직의 지도자 및 공식대변인 등의 오디오 연설을 아랍어와 영어로 제작, 전달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조직명을 ‘ISIS/ISIL’로 변경하면서 ‘알 이티삼 미디어(al-Itisam Media)’를 설립, ISIS의 승리를 홍보하는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사진과 영상을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로 제작 전달하였다.

같은 시기에 설립된 ‘알 즈나드 미디어(al-Znad Media)’는 현지 무슬림을 대상으로 꾸란 암송, 이슬람 음악인 나쉬드(nasheed), 지하드 군가 등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이슬람 국가 설립 선포 이후 ‘알 하야트 미디어 센터(al-Hayat Media Center)’ 설립, 서구권 대상의 외국어 전문 미디어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

78 Islamic State, “The Essential Duties of the Media Mujahid,” Pamphlet.

79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진행한 ISIS Files 비공개 화상회의 내용.

80 알 푸르칸 미디어 재단에서 제작한 가장 초기의 ISIS 테러 프로파간다 콘텐츠(2006. 11. 6)는 SITE Intelligence Group에서 확인 가능.



어, 쿠르드어, 우르드어 등의 다양한 언어로 영상물을 제작, 배포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Dabiq에서도 알 하야트 미디어 센터의 영상물에 대한 광고나 안내가 종종 실리기도 하였다.

또한 ‘아마크 통신(Amaq News Agency)’를 설립, 공신력 있는 미디어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아마크 통신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테러 공격의 배후 등을 주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sup>81</sup> 이는 설득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ISIS는 또한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배포하여 ‘이슬람 국가’와 관련된 정보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알 나바(al-Naba)’가 바로 이러한 뉴스레터를 담당하던 조직이었다.<sup>82</sup>

대내적으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지역별 소식과 신앙 교육에 주력하였는데, ‘알 바얀(al-Bayan)’은 모술의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ISIS의 공식 라디오 방송국이었다. 알 바얀을 통해 이슬람 신앙 교육 프로그램, ISIS의 각 지역별 소식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이슬람 종교음악 프로그램 등이 방송되었으며, 영토가 점차 상실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방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83</sup>

81 Daniel Milton, “Pulling Back the Curtain,” *CTC Report*, (Counter Terrorism Center at West Point, 2018).

82 주요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바람. [https://ent.siteintelgroup.com/index.php?option=com\\_customproperties&view=search&task=tag&tagName=Periodicals:al-Naba](https://ent.siteintelgroup.com/index.php?option=com_customproperties&view=search&task=tag&tagName=Periodicals:al-Naba) (accessed: May 12, 2020).

83 <http://www.bayancenter.org/en/tag/isis/> (accessed: May 12, 2020).

#### 다. ISIS 미디어 전략의 기본전제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 설득은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태도 변화”라고 정의된다. 특히 호블랜드(Hoveland)는 설득을 “언어적 자극을 통해 설득원이 바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용자의 의도된 행동을 유발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정의하며, 베틱하우스와 코디(Bettinghaus & Cody)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여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태도, 신념,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지속적인 시도”라고 정의한다.<sup>84</sup>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보자면 설득은 메시지 전달을 통해 수용자의 태도와 신념 나아가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시도하는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이며, 이러한 특징에서 미루어 테러조직이 전달하는 테러 프로파간다 역시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된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의도성, 도구성, 설득 대상의 특정성이라는 독특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의도성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인 의도를 의미한다. 의도성이 설득 커뮤니케이션만의 속성은 아니나, 설득의 궁극적 목표가 수용자의 태도·신념·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있기에 가장 강력한 속성이다. 도구성은 커뮤니케이션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설득 대상의 특정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스미디어와 달리 설득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 수용자에 따른 메시지, 소구방법, 매체 등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달라진다

84 김정현,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pp. 35-38.

는 것을 의미한다.<sup>85</sup>

ISIS의 출현 배경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아랍민족의 ‘인지적 부조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가 대두되게 된 배경에는 역동적이었던 이슬람 팽창주의가 중앙집권체제의 약화, 경제적 퇴보, 군사적 충돌과 반란 등으로 인해 정치적 분열과 사회·경제적 쇠퇴기를 맞이한 데 있다. 무슬림들은 이러한 현상에 종교적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무슬림의 정체성과 신앙에 대한 도전을 대응하기 위해서 “본래의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무슬림들이 꾸란적 삶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세속화되면서 종교적으로 무력하게 되었다는 데서 현재의 위기가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수한 이슬람’으로의 회귀만이 무슬림 사회의 부흥과 재건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은 종교적 갱신(tajdid)과 개혁(islah)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세 가지 전제를 갖게 된다. 첫째, 올바른 무슬림 공동체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끌던 메디나 공동체와 같은 이슬람 초기시대의 공동체이다. 무함마드와 그 후계자인 정통 칼리파들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이상적인 이슬람 통치를 시행하였으며, 그 시대를 모범으로 삼는 개혁운동을 전개한다. 둘째, 무슬림 공동체가 약화된 요인은 미신적 관행과 이단적 혁신을 의미하는 ‘비드아(bid‘a)’에 있으며, 비드아를 척결하는 것이 종교적 갱신과 개혁의 목표이다. 셋째, 10세기 이후 순니 무슬림은 이슬람 4대 법학파인 하나피·말리키·샤피이·한발리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85 차배근,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 (서울: 나남, 2003).

로 모방하여 추종하는<sup>86</sup> ‘무칼리둔(muqalidun)’<sup>87</sup>의 길을 걸어왔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무칼리둔에서 벗어나 스스로 꾸란과 순나에 근거를 두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법규범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이즈티하드(ijtihad)’의 권리<sup>88</sup>를 주장하며, 꾸란과 순나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게 된다.<sup>89</sup>

따라서 ISIS의 미디어 전략에서 제시하는 세계관 역시 이분법적이다. 이슬람의 법률과 신앙이 지배하는 세계(Dar al-Islam)와 이교도가 지배하는 전쟁의 세계(Dar al-Harb)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슬람 내부에서조차 이교도 세계의 가치관이 통용된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은 내부의 모순을 타파하는데서 시작하여 외부세계의 모순을 극복하는 단계로 이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의 활성화는 이슬람의 이상사회 건설 방법이 된다.<sup>90</sup>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비이슬람적 요소를 지닌 서구식 정치체제를 도입한 정권과 그 정책을 세속적이고, 서구 편향적이라는 이유에서 반대하였고, 집권층과의 대립을 통해 이슬람 원리주의는 정치 이념적 특성을 갖는 급진사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sup>91</sup> 이처럼 이슬람 원리주의의 정치 이념적 급진사상은 배타적이며 전통 수호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86 이를 ‘타클리드(taqlid)’라고 표현한다.

87 ‘타클리드’를 좇는 모방자라는 뜻이다.

88 박규환, 『아랍 세계의 법문화: 코란, 샤리아, 이슬람국가의 법』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4), pp. 17-18.

89 손주영, “중동 이슬람세계의 이슬람 부흥운동과 원리주의,” 손주영 편, 『중동의 새로운 이해 격쇠』 (서울:오름, 1999), p. 177.

90 최재훈, “이슬람급진주의와 지하드의 글로벌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0권 1호 (2010), p. 151.

91 Ibid., 151.

## 2. ISIS의 미디어 활용전략

### 가. 노출전략

미디어는 ‘테러의 무대(theater of terrorism)’이라는 표현대로 테러 조직은 전통적으로 미디어에 최대한 노출되기 위하여 잔인하고, 파괴적인 공격수단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ISIS 역시 인질 참수, 강제 의사, 폭사 등 잔인한 처형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함으로써 ‘노이즈 마케팅’적 효과를 노리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소셜미디어의 해시태그(hashtag)를 이용하여 반드시 테러와 지하드에 관련한 포스팅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해시태그 하이재킹이 있으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트위터의 해시태그(#Brazil, #2014WC #2014Brazil) 등 사이에 ISIS와 지하드를 의미하는 해시태그를 포함하는 트윗을 동시에 다량 전송하여 트위터 상에서 브라질 월드컵을 검색하는 불특정한 이용자가 ISIS의 메시지에 노출되게끔 하였다.

이와 유사한 해시태그 하이재킹은 당시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의 졸업식 축하연설 등 주로 서구권에 친숙한 문화와 인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데서 주요 노출 대상을 서구권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위협전략

ISIS가 공개하는 잔인한 처형 장면을 통해 이중적 위협 메시지를 전달 가능하다. 대외적으로 지하드에 대항하거나, 이슬람 원리주의에 합류하지 않는 잠재적인 적에게 인질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리라는 위협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ISIS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격이 거세질수록 ISIS가 주도, 기획하는 테러 역시 더욱 잔인해질 것임을 암시, 잔혹한 사망에 대한 비난을 국제사회로 전가 및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배교자’의 말로에 대한 공개를 보여줌으로써 ISIS가 장악한 지역을 이탈하거나 적들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리라는 위협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배교자’로 명명된 피해자들의 시신훼손을 영상뿐만 아니라 비교적 넓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여주는 것은 이슬람의 장례의식이라는 종교적 금기와 ‘이슬람 국가’의 내부와 외부를 구별짓는 경계의 역할이기도 하다.<sup>92</sup>

### 다. 홍보전략

위협전략과 동시에 ISIS에 가담한 전투원들의 생활과 전투를 미화, 친숙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전략이다.

목가적 분위기의 영상 및 사진을 통해 서구의 복잡하고 경쟁사회에서 벗어나 낭만적 생활이 가능함을 홍보하고 있으며, 주요 모집대상인 청년

92 한국외대 이수정 박사 이메일 면담.

층과 청소년층의 연령, 국적 등이 유사한 전투원을 선별, ISIS 가담 이후 삶에 대하여 증언을 제공한다.

나아가 실제 ISIS 전투원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sup>93</sup>을 개설, 강한 남성적 매력과 전투의 가치, 무슬림으로써의 헌신 등에 대한 호소 및 컬트적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여타 합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들처럼 ISIS가 직접 제작한 굿즈 상품 등을 판매하기도 하였다.<sup>94</sup>

나아가 ISIS cat과 같은 인터넷 ‘밈(meme)’을 통해 ISIS에 대하여 친근하고 친숙한 이미지 형성, 동시에 이슬람에서 고양이가 상징하는 의미를 이용하여 ‘나와 너는 같은 무슬림이며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이다.

〈그림 2〉 ISIS Cat의 활용 사례



※ 출처: (좌) Dabiq Vol. 14, (우) ISIS cat meme의 Google 검색.

93 현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ISIS 조직원이 직접 운영하였던 계정들은 모두 삭제되었다.

94 아마존에서 해당 제품들을 판매하였으나, 테러 자금 및 테러 선동 등의 이유로 현재 관련 카테고리에는 모두 삭제되었다.

## 라. 동원전략

동원(mobilization)은 위협과 홍보의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ISIS에 대한 지지층의 저변을 확대하고, 잠재적인 조직원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ask.fm’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고민상담 등의 형식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접촉 후 무슬림으로의 개종, 지하드 홍보 및 참여 독려, 실제 이동 등을 사용하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sup>95</sup>

ISIS가 조직원 모집을 위해 미디어를 사용한 것은 알카에다, 알샤바브 등 다른 테러조직과 달리 ‘외국인’ 테러전투원에게 관대하고 적극적인 모집 자세를 보여 조직원 모집에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적과 인종을 가진 ‘형제’들과 이러한 ‘형제’들을 위한 ‘자매’의 모습의 재현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 3. ISIS의 미디어 전략의 특징

### 가. 조직원 모집과 지하드 참여 독려

ISIS 역시 다른 테러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원 모집과 범세계적인 지하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등을

95 Kurt Braddock, *Weaponized Words: The Strategic Role of Persuasion in Violent Radicalization and Counter-Rad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이용한 온라인 모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SIS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메시지에 흥미를 보이는 수용자가 등장할 경우, ISIS는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시리아로 오거나 자국에서의 테러를 독려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순교자에 대한 컬트적 숭배가 조직원 모집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하드 참전 과정에서 순교한 테러전투원에 대한 영광을 포장하고, 순교자에 대한 숭배를 독려하는 동시에 순교자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지하드에 참전하는 것은 무슬림의 의무이자, '복종'에 해당하는 무슬림의 자세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순교자에게는 천국에서의 영원히 안락한 삶이 보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순교자는 순교 이전의 삶과 지하드 참전을 일종의 연대기적 구성을 통해 하나의 '컬트'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순교자의 주요 발언이나, 기꺼이 지하드에 생명을 희생하겠다는 자세 등은 지속적인 지하드 참전과 순교 선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순교자에 대한 숭배는 이른바 컬트적 현상에 가까우며, 지하드 참여에 대한 일반화와 '선한 삶'의 순환적 홍보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다.<sup>96</sup>

## 나. 극단주의적 순니 무슬림 정체성과 배타적 구분

테러행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꾸란의 주요 구절을 지속적으로 인용 및 이슬람의 상징과 재현을 반복하여 '순니 무슬림'으로써의 정체성에 대한 호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순니 무슬림의 정체성을 언

급하는 콘텐츠에서는 압도적으로 꾸란의 구절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무함마드를 위시한 예언자의 언행을 다루는 하디스의 언급도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ISIS가 제시하는 '순니 무슬림'의 정체성은 극단적 '순니 무슬림'이라는 것이다. ISIS는 같은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온건파나 지하드를 거부하는 자, ISIS에 충성맹세를 하지 않은 조직들은 모두 배교자로 규정하여 내부 정화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이러한 조직에는 타협과 공존은 불가능하며, 이상적인 이슬람 원리주의로의 회귀에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알카에다, 알 누스라 전선 등 역내 유사한 이념을 가진 테러조직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폐쇄적 구분을 통하여 독자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배신자를 처형하여 무슬림 사회의 정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단 ISIS의 적은 온건파나 다른 지하드 조직만 해당되지 않는다. 종파적으로는 시아파, 기독교 역시 ISIS의 적이며, 같은 순니 무슬림 정권이거나 순니 무슬림 국가라도 ISIS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는 세속주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비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종의 '악마(Shytahn)'로 묘사하여 악마에 대한 처벌은 결국 죽음뿐이라는 논리로 테러 선동 및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의 살해마저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의 전략적 활용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Ask.fm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채널별 메시지 전달 전략을 수립하

96 David Cook, *Martyrdom in Isl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트위터는 봇(bot)을 이용한 메시지 자동 전달 및 실시간 이슈에 대한 화제를 선점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특정 주제에 대한 선호를 통하여 유사한 생각을 가진 잠재적 지지층을 식별, 댓글 등을 통하여 페이스북 페이지 등으로 유인이 가능하다. 유튜브는 시각적 활용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잔인한 처형 장면 등을 공개, 노출 효과와 동시에 잠재적 적인 서구를 대상으로 위협을 제시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경우 가장 중요한 특징은 팔로워/팔로잉을 통해 나와 유사한 생각(like-minded)을 가진 개인들의 메시지들만 집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득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즉시성과 공간의 초월성은 ISIS가 지리적으로 머나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의 실재(reality)로 작용하기도 한다.



# IV

## ISIS의 주요 테러 담론

1. 국가성과 정당성의 재현
2. '지하디 쿨'과 소속감의 부여
3. 지하드 운동으로의 동원

### 1. 국가성과 정당성의 재현

#### 가. 정당성의 재현

정당성은 특정한 조직의 지배에 대한 적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버(M. Weber)는 전통, 카리스마, 그리고 합법적인 지배라는 차원을 통하여 정당성이 구성된다고 하였다<sup>97</sup>. ISIS의 지도자 알 바그다디를 칼리프로 재현 및 칼리파제의 선언을 통해 ISIS가 무함마드 시대의 정통성을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구성할 수 있다. ISIS가 정통으로의 회귀라는 인식은 현재 아랍 세계가 경험하는 인지적 부조화의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

ISIS의 정통성은 이슬람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일화를 통해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Dabiq의 주요 권호는 앞 부분에서 주로 종교적 일화나 역사적 일화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특히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항목은 과거 이슬람의 영광과 영토적 팽창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이러한 영광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칼리프국가로 회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ISIS가 수립한 '이슬람국가'가 이러한 칼리프국가의 원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영토적 확장과 더불어 주변의 지하드 군소조직 등이 칼리프, 즉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칼리프국가의 원형을 보존하고 확장하는데 일조할 것을 함께 주요 단신으로 기술하고 있

<sup>97</sup> 베버가 제시한 정당성의 하위 차원은 각 ISIS의 국가성과 정당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하다. 관련하여 Isis Reader 홈페이지 참조 [theisredader.com](http://theisredader.com) (accessed: March, 29, 2020).

다. 반면 ISIS가 적으로 설정한 다른 지하드 조직의 부정의함 및 조직 몰락의 당위성은 별도의 기사로 다루어 ISIS 대 알카에다 또는 ISIS 대 탈레반 등 ISIS의 일방적인 승리를 주장하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 전통적 정당성의 언급 유무

전통적 정당성		빈도	퍼센트
이슬람 역사적 인물	아니오/해당 없음	106	37.7
	있음	175	62.3
바이야 또는 충성맹세	아니오/해당 없음	208	74.0
	있음	73	26.0
칼리프 또는 절대복종	아니오/해당 없음	86	30.6
	있음	195	69.4
율법학자의 지지	아니오/해당 없음	136	48.4
	있음	145	51.6
이슬람의 우월성	아니오/해당 없음	221	78.6
	있음	60	21.4
전체	합계	281	100.0

전통적 정당성은 단순히 충성맹세를 통해서만 구축되지 않는다. 이슬람 역사적 인물과 함께 율법학자(scholar)로 표현되는 이맘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맘의 역할은 순니 무슬림에게 있어 율법의 해석과 전달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맘과 같은 율법학자의 지지는 ISIS가 다른 지하드 조직에 비해 역사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장 정당한 조직이자 국가라는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슬람국가의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에 대한 절대복종은 필수적이며, 칼리프와 절대복종은 동의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일화에서 칼리프에 대한 불복종이나 칼리프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인물이 맞이한 비참한 결말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이슬람국가’의 칼리프에 대한 절대복종을 추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편 카리스마적 정당성은 특정 인물의 권위에서 비롯되는 정당성을 의미한다. 무력투쟁을 주장하는 지하드 운동인만큼 주요 지하드 전사, 종교적 권위에서 비롯되는 예언자(무함마드 외 24인의 예언자), 지하드 이념을 발전시킨 지하드 컬트<sup>98</sup>, ISIS 조직의 전현직 리더십 인물 등이 주요 파악 대상이었다.

분석한 결과, 지하드 전사, 예언자, ISIS 리더십의 언급이 모두 언급되지 않았던 경우보다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ISIS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조직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언급함으로써 카리스마적 정당성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사이드 꾸툼이나 마크디시와 같은 주요 지하드 이론가들은 카리스마적 정당성을 구축하는데 상대적으로 인용이 적었던 편이다. 이는 ISIS가 조직의 변천과정을 겪으면서 독자적인 지하드 이론을 개발하

98 지하드 컬트를 종교적 예언자와 구분한 것은 살라피 지하디즘은 이슬람에 대한 일반적인 종교적 해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자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학과 이수정 강사 면담.



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ISIS의 독자적 지하드 이론은 Dabiq와 Rumiyah에서 언급되는 ISIS의 전현직 리더십과 관계된다. 특히 Dabiq는 매 권호의 서문에 조직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알 자르카위(al-Zarqawi)의 선언을 인용하고 있으며, Rumiyah는 매 권호의 서문에 아부 함자 알 무하지르(Abu Hamza al-Muhajir)<sup>99</sup>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주요 리더십의 연설문 기사화 또는 일부 발췌를 통하여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알리고, 각 인물이 가진 카리스마적 일화 소개를 통해 위인화를 시도하고 있다.

〈표 2〉 카리스마적 정당성의 언급 유무

카리스마적 정당성		빈도	퍼센트
지하드 전사	아니오/해당 없음	132	47.0
	있음	149	53.0
예언자	아니오/해당 없음	84	29.9
	있음	197	70.1
지하디 컬트	아니오/해당 없음	211	75.1
	있음	70	24.9
ISIS 리더십	아니오/해당 없음	133	47.3
	있음	148	52.7
전체	합계	281	100.0

99 아유브 알 마스리의 다른 이름이다.

합법적 지배를 나타내는 법적 정당성의 경우, 꾸란과 하디스, 순나의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분석 대상인 거의 모든 권호에서 꾸란과 하디스가 언급되고 있었다. 즉 꾸란과 하디스 인용을 통하여 종교적 권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하드 참전의 정당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실정법(positive law)을 세속주의적 법률로 규정, 세속주의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실정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리는 처벌은 무효라는 논리로 작용하게 된다. 즉 현세에서 하는 행동 가운데 ISIS의 지하드에 참전하는 것은 꾸란과 하디스에서 언급하는 올바른 무슬림의 길이자 운명이며, 이는 내세에서 알라의 법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표 3〉 법적 정당성의 언급 유무

법적 정당성		빈도	퍼센트
꾸란, 하디스, 순나의 언급	아니오/해당 없음	65	23.1
	있음	216	76.9
전체	합계	281	100.0

### 나. 국가로서의 지위 재현

치안의 확보는 국가의 기능 중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앞서 ISIS의 등장배경에서 기술하였던 것처럼, ISIS가 태동하고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라크의 권력 공백과 시리아의 내전 지속에 따른 정세 불안

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국가’로서 ISIS가 초반에 주력한 것 중 하나는 안정된 치안의 확보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안정된 치안의 확보는 주로 사진 보도를 통해서 강조되었으며, 치안과 안전이 확보된 ‘이슬람국가’의 생활상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슬람국가’가 등장한 초반부에 발간한 Dabiq에 게재된 사진을 살펴 보면, 노약자가 한가로이 길거리에서 일상의 휴식을 즐기는 모습, ‘이슬람국가’의 시민이 출근과 쇼핑 등 일상을 영위하는 모습,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치안과 안전의 확보에서 재현되는 담론이라 할 수 있다. ISIS가 제공하는 안정된 치안은 세속세계의 치안불안과 대조된다. 특히 무슬림 여성들의 지하드를 촉구하는 기사에서는 세속세계의 치안 불안을 지적하고 있다. 세속세계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범죄 및 일탈 문제는 ‘이슬람국가’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며, 만약 발생할 경우 범죄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통하여 ‘이슬람국가’의 완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을 추구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안전한 국가’로서의 이슬람 국가와 국가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함을 프레이밍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표 4〉 치안 확보의 언급 유무

치안 확보		빈도	퍼센트
안정된 치안 확보	아니오/해당 없음	239	85.1
	있음	42	14.9
전체	합계	281	100.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SIS는 정당성의 요소 중 하나로 법적 권위를 꾸란과 하디스, 그리고 순나의 언급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실정법이 아닌 종교적 율법인 ‘샤리아’를 통한 법치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샤리아는 각 제도의 적용과 정의구현을 통해 실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슈라위원회 및 각 지방 조직에 대한 설명은 Dabiq 초반 권호에 집중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후반부로 가면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요 거점지역에서 패퇴한 후 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발간한 Rumiyah 초반 권호에서 주요 권역의 불만 고충 처리 위원회, 지역 위원회의 인터뷰를 게재함으로써 여전히 샤리아에 의한 법치주의와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을 ‘정의의 구현’이 샤리아와 관련되어 언급되는 주요 주제라는 점이다. 앞서 ISIS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무슬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 부조화와 인지 부조화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불만을 제시한 바 있다. ISIS는 이러한 인지 부조화의 간극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써 실정법이 아닌 샤리아의 설치와 샤리아에 따른 정의 구현을 중요한 법적 제도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아랍의 세속정권, 제국주의·민주주의·자본주의 등으로 표현되는 서구권 국가에 대한 테러공격 역시 정의 구현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정법상 ‘적국의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한 죄’는 샤리아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표 5〉 법치주의의 언급 유무

법치주의		빈도	퍼센트
샤리아	아니오/해당 없음	194	69.0
	있음	87	31.0
위원회 등 제도의 작용	아니오/해당 없음	253	90.0
	있음	28	10.0
정의의 구현	아니오/해당 없음	206	73.3
	있음	75	26.7
전체	합계	281	100.0

Dabiq에서 가장 분명하게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보여주는 것은 이슬람 국가의 지방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이다. 이슬람 국가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는 공식적 관료제 구조를 따른 관계가 존재한다. 이슬람 국가는 각 지방이 이슬람 국가라는 더 큰 칼리프 국가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알카에다의 지부나 동조집단인 AQIM이나 AQAP와 알카에다 중앙 지도부와의 관계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Dabiq에서는 새로운 지방 정부의 설립을 광고하고, 다양한 지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떻게 새로운 조직이 ‘이슬람 국가’에 합류하고 싶어하는지에<sup>100</sup> 대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100 아직 Wilāyat는 아님.

일례로 리비아 지부의 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sup>101</sup> ISIS가 확보한 영토에 거버넌스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라크에 위치한 새로운 두 지방인 Wilayat al-Jazirah와 Wilayat Dijlah - 각각 모술의 서쪽과 남쪽에 위치<sup>102</sup> 동 기사 내용에서는 구조체계의 재편이 보다 나은 거버넌스를 촉진하는데 필수적이었음을 밝히고, 이슬람 국가가 행정적 및 군사적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Dabiq에서 이슬람 국가의 군사 작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때, 각 지방별 구분에 따라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103</sup>

ISIS가 이슬람 국가를 지방정부를 통한 하나의 국가로써 지배구조를 가진 행위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점령지역의 부족연합체를 포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또는 협력을 얻어내는 모습을 기사로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Dabiq 전 권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발행 초기, 즉 이슬람국가를 선언한 초기 단계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억압 또는 압제자로서의 지도부가 아닌 각 부족의 연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창간호에서 나타나듯이 부족 연합의 중요성과 상호간 존중이라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sup>104</sup>

Dabiq에 ‘주(Wilāyat)’로 명시되는 지역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안바르주(Wilāyat Al-Anbār), 아르-라까주(Wilāyat Ar-Raqqah), 바

101 “Interview with Abul-Mughirah al-Qahtani,” Dabiq, No. 11, p. 62.

102 “The Announcement of Two New Wilayat in Iraq,” Dabiq, No. 8, p. 27.

103 A Selection of Military Operations Conducted by the Islamic State로 연재된 시리즈성 기사들이 해당된다.

104 Halab Tribal Assemblies, No. 1, pp. 12-15.

라카주(Wilāyat Al-Barakah), 할랍주(Wilāyat Halab), 홈즈주(Wilāyat Homs), 키르쿠크주(Wilāyat Kirkūk), 니나와주(Wilāyat Nīnawā), 살라 후딘 주(Wilāyat Salāhhudīm). 물론 시리아-이라크 지역 외에도 다른 극단적 이슬람주의 무장단체들이 충성맹세를 해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안정적 거버넌스와 관련지어 Dabiq 발행 초기에는 점령지역의 부족 위원회들과 연합을 추구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보도되었다. 특히 이러한 연합은 ISIS의 ‘이슬람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 동시에 내부 결속을 위해 지방 정부를 통제하는 형태의 중앙집권적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6〉 안정적 거버넌스의 언급 유무

안정적 거버넌스		빈도	퍼센트
교육/복지 등	아니오/해당 없음	232	82.6
	있음	49	17.4
자선행사 등	아니오/해당 없음	266	94.7
	있음	15	5.3
전체	합계	281	100.0

또한 ISIS는 시민의 복지 등을 위한 안정적인 거버넌스 실현을 초반부에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지속된 내전 등으로 인하여 파괴된 생활시설 등의 복구에 ISIS 전투원을 투입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와 함께

ISIS가 아니면 이 정도의 안정적 거버넌스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여 대중적 지지를 함께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복구된 시설에서 일반 시민이 ISIS 전투원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사진을 함께 게재함으로써 군·민이 함께 어울리는 보통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초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진과 기사는 적의 공격에 의해 발생한 무고한 피해자인 아동이 얼마나 ‘이슬람국가’에 의해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정상적인 발달단계를 따르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증반부로 가면서 영토가 축소되는 와중에도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다른 지하드 조직과 비교하여 ISIS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영토에 ‘칼리파 제도’를 수립했다는 데 있다. 비록 영토가 확장되던 초기에는 지도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이슬람국가’의 영향력 범위인지를 제공하며 비교적 영토의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영토적 경계선 역시 일반적인 국경처럼 명확한 것은 아니며, 다소 원거리의 군소조직이 충성맹세를 한 경우도 ISIS의 영토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반(反)ISIS 연합군과의 작전에서 점차 패퇴하면서 영토의 확장을 시각적으로 지도화하는 것은 중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IS는 영토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방대한 영토의 장악을 해당 지역의 전투원 및 전투 사진 등으로 상징화하고 있다.

실제 영토 축소의 현실과 다른 방대한 영토 확장은 Dabiq가 가지고 있는 의제설정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Dabiq의 주요 독자층 중 하나인 실제 조직원과 잠재적 조직원, 추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줌으로써 ISIS가 지속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의제를 부

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7〉 영토의 확장 언급 유무

이슬람 국가 영토의 확장		빈도	퍼센트
ISIS 통치의 우월성	아니오/해당 없음	194	69.0
	있음	87	31.0
영토의 확장	아니오/해당 없음	172	61.2
	있음	109	38.8
지역 주민과 우호적 관계	아니오/해당 없음	237	84.3
	있음	44	15.7
전체	합계	281	100.0

영토확장과 관련하여 히즈라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는 국민의 존재이다. 따라서 칼리프 국가로의 이주는 ISIS가 설정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제시된다. 범세계적인 지하드 참여를 희망하는 동조자들에게 칼리프 국가로의 이주(Hijrah)를 권고하는 것은 ISIS의 영토를 확보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히즈라는 지하드가 있는 한 중단되지 않을 것”<sup>105</sup>이라는 표현은 Dabiq와 Rumiyah를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이다. 특히 히즈라에 대한 독려는 ISIS가 사실상 영토를 상실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

105 Dabiq, No. 2, p. 18.

는 모습을 보인다.

〈표 8〉 이주 독려 유무

이슬람 국가 영토의 확장		빈도	퍼센트
히즈라 독려	아니오/해당 없음	204	72.6
	있음	77	27.4
전체	합계	281	100.0

정상률과 이중화가 지적하였던 것처럼 ‘이슬람 국가’의 국가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하나의 국가라는 단위체로써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가졌는가 여부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의 지속성과 독자적 화폐의 사용 여부를 Dabiq와 Rumiyah에서 제시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이슬람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 언급 유무

지속가능한 경제		빈도	퍼센트
이슬람 국가의 통화 및 조세제도	아니오/해당 없음	258	91.8
	있음	23	8.2
전체	합계	281	100.0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경제는 Dabiq와 Rumiyah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지 않은 국가적 측면이다. Dabiq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로 다뤄준 이슈는 금화인 ‘디나르’라는 이슬람 국가의 공식 화폐와 일종의 종교세이자 구빈세인 ‘자카(Zakah)’에 대한 언급뿐이다. Dabiq 통권 5호에서 소개된 이슬람 국가의 통화는 금으로 주조된 ‘디나르’화이다. 흥미로운 점은 서구의 금융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실물 중심의 통화로의 회귀를 천명하고 있으며, 금, 은, 동으로 주조된 동전들의 실물 가치를 역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106</sup>

이는 이슬람 금융의 특성 반영과 미국 중심의 구축 통화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수 있다.<sup>107</sup> 개인의 자본 축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슬람 금융의 특성상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미국 중심의 통화는 세속주의 그 자체이며, 오늘날 무슬림의 고통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또한 종교세이자 구빈세의 성격을 가진 자카의 언급은 이슬람 국가의 조세 제도에 대한 소개인 동시에 교육·복지 등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되어 기술되고 있다.<sup>108</sup>

비록 Dabiq에는 구체적으로 액수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ISIS는 각 조직원에게 매달 미화 400-600달러에 이르는 월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럴 경우 조직원의 수입은 연간 미화 3,000달러 이상에 이르게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sup>109</sup> 조직원의 수입이 ISIS의 지속가능한

106 The Currency of the Khalifah.

107 John Cantlie 가 Dabiq에 기고한 Meltdown 시리즈 참조.

108 Dabiq, No. 12.

109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SIS FILE Project 참조.

경제와 국가성에서 중요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GDP 3,000달러가 국가의 내수경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sup>110</sup> 비록 ‘이슬람국가’의 GDP 등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경제와 자체적인 통화제도를 수립한 만큼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 기능의 유지를 모색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Rumiyah에서 ISIS의 경제는 다른 모습으로 재현된다. ISIS의 지하드 지속을 위하여 일종의 성금을 모금하는 것이 Rumiyah에서 나타나는 ISIS의 경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세의 물질적 부유함은 오히려 최악에 가까우며, ISIS의 지하드 수행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는 것이 진정한 부의 축적이자 내세의 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다.

## 2. ‘지하디 쿨’과 소속감의 부여

### 가. 하위문화로서의 ‘지하디 쿨’

ISIS는 Dabiq 창간호부터 뚜렷한 종교적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슬람 세계의 내부적 정화가 조직의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ISIS만의 살라피 지하디즘을 바탕으로 이분법적 구분이 뚜렷한 종교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무슬림 세계와 비무슬림 세계의 구분, 그리고 무슬림들은 비무슬림과 분리되어 생활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슬림 중에서도 온건파나

110 산업연구원 신윤성 신남방정책실장 면담.



ISIS가 주장하는 지하드 방법론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지하드 조직마저도 배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은 제2호인 The Flood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The Flood>는 경전의 구절을 직접적으로 지하드 이념으로 제시한 호이다. 예언자 누(Nuh)<sup>111</sup>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 방주를 건설하고, 이 방주에 탑승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홍수에 휩쓸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경전의 인용은 ISIS가 수립한 ‘이슬람국가’가 바로 예언자의 방주임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언자의 방주에 서둘러 탑승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불신자와 배교자가 경험하게 될 영원한 고통을 피하는 길이며, ISIS 합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ISIS로의 합류가 바로 올바른 무슬림 연대라는 것이다.

〈표 10〉 이슬람 국가의 종교성의 언급 유무

이슬람 국가의 종교성		빈도	퍼센트
무슬림 연대	아니오/해당 없음	88	31.3
	있음	193	68.7
비무슬림 배척	아니오/해당 없음	178	63.3
	있음	103	36.7
배교자	아니오/해당 없음	123	43.8
	있음	158	56.2
종말론/심판의 날	아니오/해당 없음	151	53.7
	있음	130	46.3
전체	합계	281	100.0

111 성경의 노아에 해당.

ISIS가 사용한 종교성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무슬림 대 비무슬림, 무슬림 대 배교자라는 명확한 이분법적 세계관이 고유한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SIS는 극단적으로 세계를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이분법적인 분류는 같은 순니 무슬림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같은 순니 무슬림이 중심을 이루는 아랍국가마저 배교자로 재현되고 있다.<sup>112</sup>

지하드의 투쟁 방식에 있어서도 온건파, ISIS의 노선에 반대하는 조직원 또한 모두 배교자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살라피 지하디즘을 공유하는 다른 지하드 조직마저도 ISIS에 대한 ‘비드아’를 맹세하지 않는 이상 배교자(murtadd)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세계관은 소속 구성원에게는 강한 유대감과 강력한 힘의 상징으로 다가오게 된다. ISIS가 구현한 이분법적인 세계관은 ISIS가 테러선전에 사용한 온라인 게임 등에서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단순히 일대일의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팀을 구성하여 진행되는 전투게임 등에서 강한 전투력을 가진 개인임과 동시에 동지애를 형성하고, 적을 섬멸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강인한 남성성의 모습은 ISIS가 일종의 <밴드 오브 브라더스(Band of Brothers)>로 인식되게 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소속된 원(原)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집단에 해당하며, 주류 사회에 비해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무슬림은 자신의 가치와 문화가 인정되는 집단을 모색하게 되는 과정에 ISIS가 제시하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 하위문화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삼게 된다.

112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요 대상.

〈표 11〉 지하디 쿨의 역할모델 언급 유무

하위문화		빈도	퍼센트
강한 남성으로써의 ISIS 전투원	아니오/해당 없음	140	49.8
	있음	141	50.2
지하드 참전 경험 공유	아니오/해당 없음	168	59.8
	있음	113	40.2
전체	합계	281	100.0

하위문화 이론에서 제시하는 주요 관심의 초점은 강한 남성성의 재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강한 남성’을 표방하는 ISIS 전투원의 재현은 남성성과 강인함이 중심이 되는 전형적인 하위문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강인함이 의미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화나 협상 등 온건한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무자비하고, 절대적인 무력에 기반한 ‘정의’의 실현이다. 따라서 기존 세속세계의 사회적 규범이나 실정법에 대한 거부는 ISIS가 구현하는 하위문화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억압된 서구세계에서 무슬림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며, 그러한 개척 과정에서 기존 사회의 범규범은 무슬림의 자율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ISIS가 구축하는 하위문화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국적의 청년층 무슬림을 외국인 테러전투원으로 유입되게 만들었다. 비록 ISIS 외국인 테러전투원에 대한 절대적인 프로파일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ISIS에 합류한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상당수가 청소년 비행과 같은 일탈경험,

나아가 경범죄 등의 전과기록 보유, 사회적 소외 및 사회부적응 등을 경험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ISIS가 제기하는 일탈적인 하위문화가 주류 문화에서 배척당한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113</sup> 특히 ISIS에 합류한 외국인 테러전투원이 원칙적인 무슬림으로써 신앙에 충실했던 집단이 아니라는 점은 중요하다. 이들은 꾸란보다 MTV 등 서구 문화에 더 익숙했던 집단이며, 꾸란 암송보다는 랩뮤직 등을 즐겨듣던 집단이다.<sup>114</sup> 따라서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충실한 지하드 수행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양식으로써 지하디 하위문화가 이들을 테러로 유인하는 담론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면에서 Dabiq와 Rumiya는 종교성과 지하디 문화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테러담론을 구축한다. 이는 종교성에 입각한 지하디 이념 전달이 하위문화적 요소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지하디 문화와 지하드 전투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ISIS가 제시하는 지하드 이념을 지루해하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기사의 배열과 내용을 배치하고 있다. 역할모델로 언급되는 지하드 전투원 역시 ISIS가 모집대상으로 선정한 일탈적 하위문화에 익숙한 대상과 유사한 담화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일련의 인터뷰 시리즈로 제시된 지하드 전투원과의 대화는 다음과 같다:

113 김은영, “테러리스트 집단의 외국인 전투원 모집과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연구,”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10호 (2016), pp. 129-165.

114 “The terrorist recruiting crossroads: Where jihad meets rap” 『CNN』, 2015. 3. 24 및 Amil Khan, “Al Qaeda’s New Front: Jihadi Rap, The suspected killer of James Foley represents a new, dangerous merger of gangsta hip-hop and Islamism,” 『Politico』, 2014. 8. 31.



“서구(the West)에서의 나는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몇 차례 절도를 저지르고 나니 나는 그들의 법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지요. 그러나 교도소에서 나는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절도를 저지른 것은 서구에 유리하게 편중된 부를 되찾아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sup>115</sup>

즉 하위문화로서의 지하드는 청년층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삶의 양식을 제공한다.<sup>116</sup> 이는 ‘지하디 쿨(jihadi cool)’이라고 하는, 청년층의 지하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 나. 소속감의 부여

외국인 테러전투원들의 지하드 합류에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배경 중 하나는 소속감의 문제이다. ‘중요한 개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급진화 경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ISIS는 지하드 조직원 모집을 위한 중요한 담론으로 ‘소속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소속감은 중요 경쟁 조직인 알카에다와는 다르다. 창간호에서 ISIS는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 시리아, 아랍 또는 중동국가의 무슬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오히려 이슬람국가는 모든 무슬림을 위한 글로벌 칼리프의 나라임을 선언하고 있다.

전세계 무슬림을 위한 글로벌 칼리프 국가를 위하여 자주 쓰이는 표현은 ‘형제’라는 표현이다.<sup>117</sup>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표현을 인용하여 지하드 전투원들과 형제애와 동지애를 함께 모색하고 있다.

비단 <밴드 오브 브라더스>만이 아니다.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 역시 중요한 인용구로 작용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동시에 주인공과 전쟁을 평가하는데 여러 상이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sup>118</sup> 서구문화물에 익숙한 대상에게 다양한 해석과 애국심 고취가 가능한 대중문화물 인용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접근성을 추구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형제’라는 표현을 통해 일종의 유대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하며, 특히 지하드 조직원과의 동일시를 통해 더욱 강력한 역할모델로 작용한다. 특히 전세계적인 지하드를 촉구하는 한편, 인종과 국가에 있어서 다양성을 용인하는 모습도 함께 보인다. 알카에다 등 기존의 지하드 조직은 아랍계 무슬림만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였으며, 개종자 등은 상대적으로 조직 내 입지가 약했던 것과 대조적인 특징이다. 이는 ISIS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강력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작용한다. 훌륭한 지하드 전사로서의 능력이 입증된다면, 조직 내에서 얼마든지 승진이 가능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직 내에서의 입지만 굳건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ISIS 조직원들에게도 인정받고, 나아가 추앙되는 인물이 될 수

115 Dabiq, No. 7.

116 Uliano Conti, “Between rap and jihad: spectacular subcultures, terrorism and visibility,”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cience*, Vol. 12 (2017), pp. 272-284.

117 Band of Brothers의 연대감을 확장하는 것이다.

118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 (accessed: June 25, 2020).

도 있다는 점은 주류 사회에서 관습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개인이 ISIS에 동조하고, 합류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sup>119</sup>

또한 Dabiq와 Rumiyah에서 형성하는 소속감은 비단 남성만 해당되지 않는다. 이른바 ‘지하디 제인’ 또는 ‘ISIS의 신부’로 불리는 서구권 국가 출신의 여성에 대한 소속감도 제시하고 있다. Dabiq의 경우, 각 권호에 “To Our Sister” 또는 “From Our Sisters”라는 기사들은 지하드에 합류하는 여성을 위한 소속감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특히 ‘움므 수마야 알 무자히라’<sup>120</sup>가 기고하는 주요 내용은 서구권 여성으로 하여금 진정한 무슬림 여성의 자세와 무슬림 여성이 서구권 국가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기술하며 이러한 해결책으로써 이슬람 국가로의 합류를 종용하고 있다. 단순히 합류만이 주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하드 전투원의 실제 전투 참여 경험과 ‘형제’라는 호명을 통해 형제애를 구축한다면, 이 섹션은 자매애와 국가에서의 익숙한 삶을 통해 결국 지하드 전투원으로써의 삶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Rumiyah에서 무슬림 여성의 이슈는 보다 능동적인 성격으로 변모하게 된다. 단순히 ISIS에 합류하여 남성 전투원을 배우자로 맞이하여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이른바 지하드의 후방에서 전투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역할 참여가 독려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역할은 지하드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 모집, 체첸 반군

의 ‘블랙 위도우’처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복수로써의 지하드 참전, 향후 지하드 전투원으로서의 역할 기대 등 발행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표 12〉 소속감의 언급 유무

소속감		빈도	퍼센트
형제애	아니오/해당 없음	124	44.1
	있음	157	55.9
충성심	아니오/해당 없음	131	46.6
	있음	150	53.4
무슬림 여성 이슈	아니오/해당 없음	258	91.8
	있음	23	8.2
이슬람국가 내 거주 지속	아니오/해당 없음	204	72.6
	있음	77	27.4
전체	합계	281	100.0

소속감을 형성하는 또다른 담론은 ISIS가 제시하는 적(enemy)이다. 종파주의적 시각에서 제시되는 적과 반서구적 시각에서 제시되는 적, 지하드 방법론에서 제시되는 적, 크게 3가지 세력이 ISIS가 설정하고 있는 적의 구분이다. 첫째, 종파주의적 시각에서 제시되는 적은 주로 시아파, 쿠르드, 야지디가 해당된다. 특히 이란, 레바논 등은 주요 적대국으로 재현된다. 둘째, 반서구·반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제시되는 적은 미국을 비

119 범죄학에서 의미하는 ‘관습적(conventional)’의 의미는 기존 사회의 법과 규범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120 Dabiq에 등장하는 지하드 전투원 및 조직원들은 모두 가명을 쓰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Abu’ 라는 표현이, 여성의 경우 ‘Umm’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이는 출신 부족 등을 밝히는 전통을 중시하고자 함과 동시에 신원 확인을 피하고자 하는 가명으로 사용된다.

못한 주요 유럽국가와 일본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했던 이유로 반서구적 세력으로 구분된다. 또한 ISIS는 ‘십자군(crusader)’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슬람이 아닌 국가를 규정하고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러시아와 중국 역시 큰 틀에서 반서구적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의 개입이 주된 원인이며, 중국은 서구와의 동조 또는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중동·아프리카에 진출하여 중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무슬림 실업률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하드 방법론에 따른 적의 구분인데, 온건파 지하드 조직이나 다른 지하드 조직이 해당된다. Dabiq의 초반부에서는 주로 알카에다를 적대적 집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비록 ISIS가 알 자르카위의 리더십 아래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였던 시절이 있었으나, 알카에다의 잘못된 방법론은 오히려 글로벌 지하드 수행을 저해하고 있으며, 불신자에 버금가는 배교자(murtadd)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억압에 맞서 싸운 영웅이자 무고한 피해자로 그려짐과 동시에 지하드의 선도적 위치를 점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Dabiq 후반부와 Rumiyah에서는 알카에다만이 유일하게 ISIS와 적대적 집단이 아니다. 알 누스라 전선과 탈레반이 또다른 적대적 집단으로 제시된다. 이는 영토 축소와 함께 ISIS가 북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세력확장 및 조직개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 3. 지하드 운동으로의 동원

#### 가. ‘의’를 실현하는 지하드

ISIS의 지하드 방법론은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인질 참수, 적군 조종사의 화형 및 폭살 등 극도로 잔인하다. 특히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 살해 역시 테러 대상으로 빈번하게 제시되는데, ISIS는 이러한 민간인 살해에 대한 근거를 ‘응보’로 제시하고 있다. 적으로 규정되는 세력이 자행하는 도덕적·성적 일탈과 무슬림 영토 점령에 대한 처벌로써 지하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성적 일탈을 묘사하고 이에 대한 민간인 살해는 적에 저지른 원죄(sin)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라는 묘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Dabiq와 Rumiyah가 제시하는 의(righteousness)는 지하드를 정당화하는 주요 논리이자, 동시에 앞서 기술한 전통적·카리스마적·법적 정당성과 함께 ISIS가 주도하는 ‘이슬람국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는 이분적인 세계관으로 구성되는 특징이 보인다. 반서방, 반세속, 반시아라는 주요 적들과 ISIS로 구분되는 세상에서 적들은 기만적이고, 위선적이며, 비합리적이다. 같은 지하드 조직이라 하더라도, ISIS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조직 역시 적으로 간주된다. 대표적인 경쟁 구도에 있는 알카에다가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ISIS는 지하드의 방법론은 많은 인명 살상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인명 살상에는 민간인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알카에다와 비교하자면, 알카에다는 서구권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적이자 성스러운 땅에 사는 이교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배척하는 내용이 알카에다 조직원에 대한 내용보다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ISIS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하드 전투원의 삶과 생활을 다루고 있으며, 그들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다. 특히 잔혹한 행위를 의로운 행위로 규정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을 거부하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인 배교자(murtadd)의 처형은 ISIS가 재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명확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동안 ISIS와 Dabiq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독교도와 불신자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기 때문에 한 가지 놓친 점이 있다. 바로 무슬림인 ‘배교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규정하느냐의 문제이다.

ISIS는 배교자를 불신자보다 더욱 그 죄가 무거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처형 또한 더욱 잔혹한 양상을 보인다. 배교자에 대한 가중치는 언급의 빈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Dabiq와 Rumiyah에서는 불신자보다 배교자에 대한 언급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는 ISIS 대 나머지 무슬림 전체, ISIS 대 다른 지하드 조직, ISIS 대 세속주의 등의 대결구도로 연결된다.

특히 배교자는 불신자에 비해 같은 무슬림으로써 ISIS가 수행하는 지하드에 대한 강력한 장애물로 작동한다는 것이 ISIS의 입장이다. 따라서 ISIS는 같은 순니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ISIS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배교자’라는 낙인을 부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13〉 불신자와 배교자의 언급 비교

		빈도	퍼센트
불신자	아니오/해당 없음	178	63.3
	있음	103	36.7
배교자	아니오/해당 없음	123	43.8
	있음	158	56.2
전체	합계	281	100.0

배교자에 대한 거부는 Dabiq와 Rumiyah에 게재된 사진의 대조적인 모습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ISIS의 지하드 수행 중 사망한 조직원은 ‘순교자’의 영예를 얻게 된다. 사망한 조직원의 시신은 깨끗이 염을 하고, 순백의 수의를 입고 관에 안치된 모습으로 재현된다. 사망한 조직원에게는 알라가 인도하는 천국에서의 영생과 영원한 행복이 약속된다.

그러나 배교자의 처형과 처벌은 훼손된 시신에 유혈이 낭자한 모습이 그대로 게재된다. 특히 참수하는 장면에서 목이 떨어지는 순간, 사망 순간에서 훼손되는 신체를 어떠한 필터링 없이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잔혹한 사진 게재를 통한 호기심 유발과 함께 공포심의 조장을 가져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미에서 시신 훼손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sup>121</sup>

인도적인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서구권 국가의 인질에게는 비인

121 <https://www.sfgate.com/opinion/article/An-act-of-contempt-for-morality-2749211.php> (accessed: June 23, 2020).

도적인 방식의 처형을 집행하며, 화장이 종교적으로 기피하는 장례방식인 배교자에게는 종교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인 화형으로 처형을 집행함으로써 내세를 보장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배교자의 처형은 지하드 수행 방해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갖게 된다.<sup>122</sup> 이러한 측면에서 참수는 ISIS의 반대세력에 대한 공포감을 주는 동시에 ISIS의 조직원에게 적의 처결과 지하드 참전에 대한 호소력을 주는 이중적 메시지를 구성하게 된다.

### 나. 지하드의 정당화 논리

중화의 논리는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기제를 의미한다. 마짜와 사이크스는 중화의 논리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이 중 ISIS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의 뜻
- 신에의 복종
- 적의 위선·기만·거짓
- 우상숭배
- 무슬림 영토의 점령 및 억압
- 적의 악마화
- 동해보복 또는 복수의 논리

<sup>122</sup> 꾸란 16:126 “And in case you (This is addressed to all believers), punish, then punish with the like of that wherewith you were punished; and indeed in case you endure patiently, indeed it is more charitable of the patient” 의 구절 참조.

신의 뜻은 알라의 뜻에 따라 테러를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신에의 복종은 알라가 지하드를 지시한 경우 이에 복종한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는 중화의 논리 중 ‘충성심에의 호소’에 해당된다. 즉 현실세계의 규범보다 상위의 규범인 알라에게 충성을 하였기 때문에 테러와 지하드가 정당화된다는 논리이다.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기사 of 절반 이상에서 신의 뜻과 신에의 복종이 등장하였다.

〈표 14〉 충성심에의 호소

중화의 논리		빈도	퍼센트
신의 뜻	아니오/해당 없음	98	34.9
	있음	183	65.1
신에의 복종	아니오/해당 없음	109	38.8
	있음	172	61.2
전체	합계	281	100.0

충성심에의 호소만큼 빈번하게 등장한 요소는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다.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ISIS를 비방하는 대상 또한 거짓말과 위선적 행동을 일삼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비난자에 대한 비난 다음은 피해자의 부인이다. 즉 피해자가 테러공격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주요 논리인데, 이는 피해자가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며 피해를 받아 마땅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부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과거 행동을 비난하는 양상을 보인다. 우상숭배처럼 종교적인 금기, 제

국주의에 동조하여 무슬림 영토를 점령한데 대한 응징, 악마에 대한 종교적 처벌, 마지막으로 이미 발생한 무슬림의 피해에 대한 보복이 주요 요소이다.

피해자의 부인 가운데, 우상숭배와 무슬림 영토에 대한 점령, 악마화와 동해보복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ISIS의 영토가 축소되고 세력이 약화되는 서구 미디어에 대한 내부 단속이자, 이를 믿을 수 없는 출처로 만듦고자 하는 노력과 병행된다. 또한 종교적 의미의 처벌과 동해보복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아무리 ISIS가 잔인한 공격을 벌이더라도 실제로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정당화의 근거를 제공한다.

〈표 15〉 정당화 논리의 유무

중화의 논리		빈도	퍼센트
적의 위선, 기만, 거짓	아니오/해당 없음	128	45.6
	있음	153	54.4
우상숭배	아니오/해당 없음	204	72.6
	있음	77	27.4
무슬림 영토 점령/억압	아니오/해당 없음	204	72.6
	있음	77	27.4
악마화	아니오/해당 없음	206	73.3
	있음	75	26.7
동해보복/복수	아니오/해당 없음	206	73.3
	있음	75	26.7
전체	합계	281	100.0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인 살해 정당화가 제기된다.

〈표 16〉 민간인 살해 정당화 논리의 유무

중화의 논리		빈도	퍼센트
민간인 살해 정당화	아니오/해당 없음	195	69.4
	있음	86	30.6
전체	합계	281	100.0

#### 다. 조직원 모집 메시지

Dabiq가 작용하는 주요 기능 중 하나는 ISIS의 조직원 모집이다. Dabiq는 앞서 주요 담론 중 하나인 ‘정당성’과 ‘국가로서의 지위’ 그리고 ‘소속감’과 ‘의’를 통해 잠재적인 지지자와 조직원 모집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를 대상으로 능동적인 지하드 참전에의 요청은 다른 테러조직과의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알카에다는 조직이 은밀하고, 외국의 테러 단체이자 거리가 먼 위협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ISIS는 이러한 특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ISIS는 근접한 위협이자 외향적이고, 대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4시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뉴스 보도의 사이클을 악용, 다양한 주류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

ISIS의 프로파간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파간다는 통해 ISIS는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첫째 ISIS의 행위에



대한 영광을 부여한다. ISIS의 행위는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소름끼치며 위협적이지만 독창적이고 고유한 것은 아니다. 인류 역사상 타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행위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ISIS의 행위가 다른 테러행위와 구별되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를 전세계적으로 과시하는데 영상증거를 남긴다는데 있다.<sup>123</sup>

따라서 온라인 잡지인 Dabiq 역시 이러한 지하드 참여 독려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다른 테러조직과 다르게 Dabiq는 기사의 배열이나 사진, 전체적인 편집과 구성 등의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미적인 고려까지 포함하고 있다. 영어로 제작된 테러조직의 매체는 Dabiq가 처음이 아니다. 아라비아 알카에다 지부는 인스파이어(Inspire)라는 잡지를 2010년 제작하였다. 그러나 인스파이어지(紙)의 조악한 편집과 기사 등은 질적인 측면에서 Dabiq에 뒤떨어진다는 평을 받는다. 그리고 인스파이어지는 보다 전술적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주력하여, 집안에서 사제폭발물을 제조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보행자를 대상으로 테러공격을 가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sup>124</sup> 그러나 Dabiq에서 이슬람 국가로의 합류가 어려운 경우, 현재 체류하고 있는 곳에서의 외로운 늑대 공격을 독려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전술지침을 전달하기 보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메시지와 ISIS의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하드 참여와 관련하여 ISIS는 Dabiq에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직접적인 접촉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ISIS의 알 하야트 미디어 센터는 테러 프로파간다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주로 알 하야트 미디어 센터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를 접하는 방법과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는 잡지라는 성격상 하나의 권호를 제작하는데 비교적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면, 소셜미디어의 즉시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시간 검색어를 통한 테러 메시지의 전파와 해당 메시지에 대한 접촉을 통해 보다 심화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잠재적인 지지자이자 조직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대상은 앞서 기술한 정당성, 국가로서의 지위, 소속감 등의 담론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ISIS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킨다.

예를 들어 2015년 텍사스 총기테러 직후 발간된 Dabiq 9호는 해당 사건의 테러범들을 추앙하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그들 중 한 명이 전송한 트위터 메시지를 캡처하여 알 바그다디에 대한 충성맹세(바이야)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123 Ibid., p. 56.

124 Alastair Reed & Dr. Haroro J. Ingram, "Exploring the Role of Instructional Material in AQAP's Inspire and ISIS' Rumiya," The 1st European Counter Terrorism Centre (ECTC) Conference on online terrorist propaganda, 10-11 April 2017, at Europol Headquarters, The Hague.

〈표 17〉 지하드 참여 언급 유무

		빈도	퍼센트
무슬림의 자세	아니오/해당 없음	91	32.4
	있음	190	67.6
개인적 지하드 촉구	아니오/해당 없음	151	53.7
	있음	130	46.3
지하드의 회복성	아니오/해당 없음	90	32.0
	있음	191	68.0
지하드 방법론 제시	아니오/해당 없음	118	42.0
	있음	163	58.0
글로벌 지하드	아니오/해당 없음	108	38.4
	있음	173	61.6
전체	합계	281	100.0

지하드 참여를 독려하는 담론은 진정한 무슬림의 자세 촉구와 지하드의 회복성(resilience) 제시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정한 무슬림이라면 신의 뜻에 따라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 무슬림의 자세에 해당하며, 이로써 지하드는 일시적인 후퇴는 있을지언정 결국 전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위한 회복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하드의 회복성은 ISIS의 영토가 확장될 경우에는 회복성의 증거로 제시되었지만, ISIS의 영토가 축소될 경우에는 가까운 미래의 승리를 담보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이중적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지하드 동원의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지하드 촉구에 있다. ISIS가 소강 상태에 있더라도 여전히 이라크-시리아 지역에서는 ISIS의 조직원을 환영하며, 글로벌 지하드에 동참하자는 메시지가 해당된다. 글로벌 지하드 참여에 대한 메시지가 일관되게 제시되었던 반해 개인적 지하드는 권호의 발행과 ISIS 영토 축소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개인적 지하드는 ISIS가 위치한 이라크-시리아에 합류하는 대신 자신이 현재 속한 사회에 대한 지하드를 외로운 늑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반에는 적극적인 이슬람국가로의 이주를 독려하면서 개인적 지하드는 언급 빈도가 낮았지만, ISIS의 영토가 축소되고, 세계 각국에서 이라크-시리아로의 이동이 차단하는 등 물리적 합류가 어려워지면서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다. 특히 Rumiyah는 Just Terror Tactics라는 인포그래픽 기사 시리즈를 통해 흉기, 차량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수단을 이용한 테러 전술을 설명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많은 인명 살상을 할 수 있는 법등을 전수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지하드 운동으로의 동원은 진정한 무슬림의 자세라는 담론이 가장 빈번하게 제시됨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지하드의 성격 역시 서구의 억압 등에 대한 자기방어적 성격보다는 무슬림으로서의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특히 지하드의 의무는 무슬림의 자세와 함께 언급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지하드의 성격

지하드의 성격		빈도	퍼센트
지하드의 자기방어성	아니오/해당 없음	208	74.0
	있음	73	26.0
지하드의 의무성	아니오/해당 없음	100	35.6
	있음	181	64.4
전체	합계	281	100.0

〈표 19〉 순교와 희생의 언급 비교

순교와 무슬림의 희생		빈도	퍼센트
순교	아니오/해당 없음	217	77.2
	있음	64	22.8
무슬림의 희생	아니오/해당 없음	176	62.6
	있음	105	37.4
전체	합계	281	100.0

ISIS가 제시하는 테러담론에서 순교는 중요한 담론 중 하나로 언급된다. 즉 무력투쟁인 지하드에 가담하여 설사 사망하더라도, 순교자에게는 내세의 영원과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하드에 임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교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보다 보다 광의의 메시지인 희생을 강조하는 경향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즉 참고 기다리며, 알라가 임하는 칼리프국가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물질적 빈곤, 육체적 사망 등을 감내하는 것 또한 지하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희생을 강조하는 경향은 Dabiq에 게재되는 ISIS의 '사실상 승리'가 의제로 설정되면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지금 당장 칼리프의 통치가 전세계에 임하는 이슬람 국가로의 통일은 어렵지만, 인내하면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의제로 선택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V

## 결론

## 1. 연구결과의 종합 및 대항 담론의 구성전략

## 2.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 1. 연구결과의 종합 및 대항 담론의 구성전략

이 연구보고서는 ISIS의 테러담론을 정당성과 국가성의 재현, ‘지하디 쿨’이라는 하위문화의 형성과 소속감의 부여, 그리고 지하드 운동으로의 동원이라는 세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조직의 지배에 대한 적법성을 부여하는 정당성은 전통적 정당성, 카리스마적 정당성, 법적인 정당성의 차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먼저 전통적 정당성은 ISIS의 지도자 알 바그다디를 칼리프로 재현 및 칼리파제의 선언을 통해 ISIS가 무함마드 시대의 정통성을 잇는 국가라는 인식을 구성할 수 있다. ISIS가 정통으로의 회귀라는 인식은 현재 아랍 세계가 경험하는 인지적 부조화의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 ISIS의 정통성은 이슬람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일화를 통해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과거 이슬람의 영광과 영토적 팽창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이러한 영광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칼리프국가로 회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ISIS가 수립한 ‘이슬람국가’가 이러한 칼리프국가의 원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영토적 확장과 더불어 주변의 지하드 군소조직 등이 칼리프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칼리프국가의 원형을 보존하고 확장하는데 일조할 것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반면 ISIS가 적으로 설정한 다른 지하드 조직의 부정의함 및 조직 몰락의 당위성 언급을 통해 ISIS의 일방적인 승리를 주장하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 정당성은 단순히 충성맹세를 통해서만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학자의 역할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율법학자의 지지는 ISIS가 다

른 지하드 조직에 비해 역사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장 정당한 조직이자 국가라는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슬람국가의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에 대한 절대복종은 필수적이며, 칼리프와 절대복종은 동의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카리스마적 정당성은 특정 인물의 권위에서 비롯되는 정당성을 의미한다. 분석한 결과, 지하드 전사, 예언자, ISIS 리더십의 언급이 모두 언급되지 않았던 경우보다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ISIS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조직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언급함으로써 카리스마적 정당성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주요 지하드 이론가들은 카리스마적 정당성을 구축하는데 상대적으로 인용이 적었던 편이다. 이는 ISIS가 조직의 변천과정을 겪으면서 독자적인 지하드 이론을 개발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ISIS의 전현직 리더십과 관계된다. 합법적 지배를 나타내는 법적 정당성의 경우, 꾸란과 하디스, 순나의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분석 대상인 거의 모든 권호에서 꾸란과 하디스가 언급되고 있었다. 즉 꾸란과 하디스 인용을 통하여 종교적 권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하드 참전의 정당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국가성의 재현은 치안과 안전의 확보, 법치주의의 실현, 안정적 거버넌스의 운영, 사회복지의 제공 및 지속 가능한 경제의 구축을 통해 형성된다. 먼저 '국가'로서 ISIS가 초반에 주력한 것 중 하나는 안정된 치안의 확보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안정된 치안의 확보는 주로 사진 보도를 통해서 강조되었으며, 치안과 안전이 확보된 '이슬람국가'의 생활상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전통적 정당성의 요소 중 하

나로 제시된 법적 권위를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종교적 율법인 '샤리아'를 통한 법치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샤리아는 각 제도의 적용과 정의구현을 통해 실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을 '정의의 구현'이 샤리아와 관련되어 언급되는 주요 주제라는 점이다. 앞서 ISIS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무슬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 부조화와 인지 부조화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불만을 제시한 바 있다. ISIS는 이러한 인지 부조화의 간극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써 실정법이 아닌 샤리아의 설치와 샤리아에 따른 정의 구현을 중요한 법적 제도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의 각 지방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를 통해 안정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을 재현하고 있었다. 이슬람 국가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는 공식적 관료제 구조를 따른 관계가 존재한다. 안정적 거버넌스와 관련지어 Dabiq 발행 초기에는 점령지역의 부족 위원회들과 연합을 추구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보도되었다. 특히 이러한 연합은 ISIS의 '이슬람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 동시에 내부 결속을 위해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형태의 중앙집권적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ISIS는 시민의 복지 등을 위한 안정적인 거버넌스 실현을 초반부에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지하드 조직과 비교하여 ISIS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영토에 '칼리파 제도'를 수립했다는 데 있다. 비록 영토가 확장되던 초기에 비해 반(反)ISIS 연합군과의 작전에서 점차 패퇴하면서 영토의 확장을 시각적으로 지도화하는 것은 중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IS는 영토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방대한 영토의 장악을 해당 지역의 전투원 및 전투 사진 등으로

상징화하고 있다. 그리고 영토 확장과 관련하여 히즈라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경제는 Dabiq와 Rumiyah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지 않은 국가적 측면이다. 비록 ‘이슬람국가’의 GDP 등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경제와 자체적인 통화제도를 수립한 만큼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 기능의 유지를 모색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Rumiyah에서 ISIS의 경제는 다른 모습으로 재현된다. ISIS의 지하드 지속을 위하여 일종의 성금을 모금하는 것이 Rumiyah에서 나타나는 ISIS의 경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세의 물질적 부유함은 오히려 최악에 가까우며, ISIS의 지하드 수행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는 것이 진정한 부의 축적이자 내세의 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ISIS는 이분법적 구분이 뚜렷한 종교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무슬림 세계와 비무슬림 세계의 구분, 그리고 무슬림들은 비무슬림과 분리되어 생활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슬림 중에서도 온건파나 ISIS가 주장하는 지하드 방법론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지하드 조직마저도 배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ISIS가 사용한 종교성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무슬림 대 비무슬림, 무슬림 대 배교자라는 명확한 이분법적 세계관이 고유한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SIS는 극단적으로 세계를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이분법적인 분류는 같은 순니 무슬림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세계관은 소속 구성원에게는 강한 유대감과 강력한 힘의 상징으로 다가오게 된다.

특히 ‘강한 남성’을 표방하는 ISIS 전투원의 재현은 남성성과 강인함이

중심이 되는 전형적인 하위문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ISIS가 구축하는 하위문화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국적의 청년층 무슬림을 외국인 테러전투원으로 유입되게 만들었다. Dabiq와 Rumiyah는 종교성과 지하드 문화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테러담론을 구축한다. 이는 종교성에 입각한 지하드 이념 전달이 하위문화적 요소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지하드 문화와 지하드 전투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ISIS가 제시하는 지하드 이념을 지루해하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기사의 배열과 내용을 배치하고 있다. 즉 하위문화로서의 지하드는 청년층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삶의 양식을 제공한다.<sup>125</sup> 이는 ‘지하드 쿨(jihadi cool)’이라고 하는, 청년층의 지하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ISIS는 지하드 조직원 모집을 위한 중요한 담론으로 ‘소속감’을 제시하고 있다. 전세계 무슬림을 위한 글로벌 칼리프 국가를 위하여 자주 쓰이는 표현은 ‘형제’라는 표현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형제’라는 표현을 통해 일종의 유대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하며, 특히 지하드 조직원과의 동일시를 통해 더욱 강력한 역할모델로 작용한다. 특히 전세계적인 지하드를 촉구하는 한편, 인종과 국가에 있어서 다양성을 용인하는 모습도 함께 보인다.

또한 Dabiq와 Rumiyah에서 형성하는 소속감은 비단 남성만 해당되지 않는다. 이른바 ‘지하드 제인’ 또는 ‘ISIS의 신부’로 불리는 서구권 국가 출신의 여성에 대한 소속감도 제시하고 있다.

소속감을 형성하는 또다른 담론은 ISIS가 제시하는 적(enemy)이다.

125 Uliano Conti, “Between rap and jihad: spectacular subcultures, terrorism and visibility,”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cience*, Vol. 12 (2017), pp. 272-284.



종파주의적 시각에서 제시되는 적과 반서구적 시각에서 제시되는 적, 지하드 방법론에서 제시되는 적, 크게 3가지 세력이 ISIS가 설정하고 있는 적의 구분이다. 중화의 논리는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기제를 의미한다. 중화의 논리 가운데 ‘충성심에의 호소’에 해당되는 신의 뜻과 신에의 복종이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Dabiq와 Rumiya가 작용하는 주요 기능 중 하나는 ISIS의 조직원 모집이다. Dabiq는 앞서 주요 담론 중 하나인 ‘정당성’과 ‘국가로서의 지위’ 그리고 ‘소속감’과 ‘의’를 통해 잠재적인 지지자와 조직원 모집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를 대상으로 능동적인 지하드 참전에의 요청은 다른 테러조직과의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하드 참여를 독려하는 담론은 진정한 무슬림의 자세 촉구와 지하드의 회복성(resilience) 제시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정한 무슬림이라면 신의 뜻에 따라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 무슬림의 자세에 해당하며, 이로써 지하드는 일시적인 후퇴는 있을지언정 결국 전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위한 회복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하드 운동으로의 동원은 진정한 무슬림의 자세라는 담론이 가장 빈번하게 제시됨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지하드의 성격 역시 서구의 억압 등에 대한 자기방어적 성격보다는 무슬림으로서의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특히 지하드의 의무는 무슬림의 자세와 함께 언급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항담론의 구성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항담론의 주요 소비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ISIS는 주요 모집대상으로 삼았던 청년층이 익숙한 소셜미디어와 하위문화를 테러담론을 구성하는 데 이용하였다. 청년

층이 즐겨 듣는 랩음악과 전통음악의 결합을 통해 지하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사용되었고,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항인 일자리, 이성관계 등을 소재로 지하드로의 참전을 유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대항담론 역시 테러는 사회적 일탈이자 위법행위라는 명제로 구성되는 것은 청년층에 소구되지 못한다. 청년층이 관심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하며, 청년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실시된 사회공정성 조사에서 청년층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공정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을 겨냥하는 테러 담론은 사회적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대안적 수단으로써 테러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항 담론은 사회적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써 테러조직원이나 테러행위 가담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청년층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메시지의 구성전략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각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유용한 메시지 구성전략을 수립하고, 플랫폼의 변화가 즉각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다층적인 담론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분법으로 극단화된 테러담론에 대하여 각각의 담론이 제시하는 메시지에 반하는 메시지를 개발하되, 각 메시지가 하나의 유기체로 활동할 수 있는 다층적 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ISIS가 제시하는 테러담론은 국가성과 정당성, 지하드 문화와 소속감의 부여, 지하드 운동 동원 등이 해당되었다. 예를 들어 전통적 정당성에 대한 ISIS의 내러티브에 반대되는 메시지는 ISIS가 제시하는 전통적 정당성을 부정하되, 카리스마적·법적 정당성 또한 함께 부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역사 속 한 장면에서 보이는 무력 투쟁이 왜 오늘날에는 정당화될 수 없는지, 나아가 지

하드라는 무력 투쟁을 정당화하는 율법적 정당성이 세속세계의 법률과 충돌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리 구조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세속세계의 법률이 율법과 무조건적으로 대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테러담론에 대항하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테러담론에 대안으로 제시될 있는 담론(alternative narrative) 개발 역시 필요하다. ISIS는 지하드 참전을 무슬림의 의무라는 메시지를 개발하고 확산하였다. 이에 대항하는 담론은 지하드 참전이 무슬림의 의무가 아니라는 내용 뿐만 아니라 진정한 무슬림의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ISIS와 같은 테러 담론이 제시하는 내용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대항 담론을 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테러담론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테러담론에 반대되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대안의 제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 2.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2014년 6월 29일 급진 이슬람주의 이념을 내세우며 국가를 참칭한 ISIS의 등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첫째, 과거 다양한 형태의 이슬람 원리주의 정치운동 및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 조직이 존재했지만, 국가를 선포한 사례는 ISIS가 최초라는 점이다. 둘째, 단순히 국가를 선포한 데서 그치지 않고 단일한 통치자인 칼리프(caliph) 아래 국가체제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ISIS가 주도하는 범세계적인 지하드에 참여한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규모가 최대 120개국 40,000여 명에 달하였으며, ISIS를 추종하는 테러공격이 비단 이라크-시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함에 따라 테러확산 현상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넷째, 외국인 테러전투원 및 세계 각지의 자생테러 선동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를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테러조직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전략은 비단 ISIS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특징은 아니다. 조직원 모집, 지지자 및 동조자 확보, 테러자금 조달 및 테러 선전·선동 목적의 미디어 이용은 전통적이고 보편적이다. 과거에는 테러조직이 노출을 희망하는 주요 미디어가 텔레비전이었으며, 테러조직은 미디어에 노출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른바 뉴미디어로 불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테러조직의 미디어 전략에 대대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테러조직은 미디어로부터 선택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이 직접 미디어를 선택하여 조직의 이념을 선전하기 시작하였고, 조직원의 모집과 동원을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9/11 테러 주범인 알 카에다(al Qaeda)는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과 아이만 알 자와히리(Ayman al Zawahiri) 등 주요 인사의 비디오 연설 및 다큐멘터리 등을 적극적으로 제작하여 특정 이용자들만이 접속 가능한 폐쇄적 인터넷 사이트나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배포하였다. 2013년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테러의 주범인 알 샤바브(al-Shabab)는 해당 사건 당시 자신들의 소행을 자랑하는 트위터(Twitter) 메시지를 다수 배포한 바 있다. 따라서 ISIS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의 온라인 소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를 선언한 이후 ISIS의 미디어 전략은 메시지의 설계 및 배포방식의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평가는 ISIS로 꾸준히 유입된 최대 규모의 외국인 테러전투원 문제와 시리아·이라크를 제외한 세계 각지의 29개국에서 ISIS 추종 테러가 발생한 데서 기인한다.

국제사회는 ISIS가 점령했던 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탈환되면서 ISIS의 영토 축소가 조직의 궤멸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ISIS의 영토 축소는 이슬람의 궁극적 공동체인 ‘움마(Ummah)’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을 확산하여 오히려 해외 출신의 테러전투원들이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시리아 등지에 합류하지 못한 추종자들은 자국 또는 인접한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의 건설을 위한 테러공격을 실행하였다.

이처럼 이라크와 시리아라는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테러조직이 국가와 유사한 체제를 수립하고, 지역을 벗어나 전 세계의 추종자들을 유인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ISIS만의 테러 담론으로 구성된 프로파간다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다.<sup>126</sup> 비록 2019년 3월 ISIS가 물리적 영토를 잃고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으로 전환되었지만 ISIS가 초래한 테러확산 현상은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여 지속되거나 특정한 계기를 기회로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ISIS의 군사적·물리적 역량뿐만 아니라 ISIS가 수행한 프로파간다 역량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ISIS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향후 테러와 관련된 홍보·설득 수단

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테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격수법에 대한 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대테러정책에 테러담론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담론이 대테러정책 개발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담론은 한국적 맥락에 맞도록 개발될 필요가 있다.

126 인남식, “ISIL 선전전의 내용과 함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16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 p. 1.

## Abstract

---

### ISIS Media Strategy and Terrorist Discourse

**Park, Bora**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spite the loss of the last territory in Syria and the death of the founder and leader of ISIS, Al Baghdadi, it is considered that ISIS still remains active. Rather, their defeat in the Middle East has served as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scope of their influence to North Africa, Central Asia, and Southeast Asia. Considering recent terrorist attacks in the regions where their affiliates are actively operating, the media strategy and terrorist narrative used by ISIS might appear as the fifth wave of Jihad led by next-generation jihadists.

In particular, the facts that the young from nearly 140 countries traveled to Syria and joined the ISIS and the majority of the ISIS fighters were the youth aging from 12 to 28 showe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counter-terrorism policies focusing on the use of social media and the youths.

From that perspective, this reports identified major terrorist

narratives from the ISI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ir English online magazines, Dabiq and Rumiya. The main terrorist narratives were identified as the representation of statehood and legitimacy, the formation of a 'jihadi cool' subculture, and the mobilization of the global jihadist movement.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for counter-narrative were suggested.

#### Keywords

ISIS, Media Strategy, Terrorist Discourse,  
Jihadi culture, Counter-narrative

## 참고문헌

## 가. 국내문헌

- 강영숙.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조직 IS(Islamic state) 위협실태.” 『한국테러학회보』 제7권 제4호 (2014) pp. 7-38.
- 곽대경 외.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3.
- 김수완. “IS와 미디어 전략.” 『중동문제연구』 14권 2호 (2015) pp. 1-28.
- 김은영. “IS의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로파간다의 방식과 영향력 분석 연구.” 『국가정보연구』 제7권 2호 (2015) pp. 41-73.
- \_\_\_\_\_. “테러리스트 집단의 외국인 전투원 모집과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연구.”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10호 (2016) pp. 129-165.
- 김정현. 『실득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박규환. 『아랍 세계의 법문화: 코란, 샤리아, 이슬람국가의 법』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4.
- 박보라·장석현. “극단주의 테러법의 심리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보』 제14권 1호 (2018) pp. 67-84.
- 박현도. “『야만의 경영』을 넘어: IS의 이슬람국가와 지하드.” 『한국과 국제정치』 32권 1호 (2016) pp. 25-50.
- 서정민.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의 이념적 그리고 전략적 차이.”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5권 제2호 (2015) pp. 87-110.
- \_\_\_\_\_. “IS의 형성과 발전.” 『IS를 말한다』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2015) pp. 17-19.
- \_\_\_\_\_. “이슬람국가(IS)의 미디어 전략과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중동연구』 제34권 제3호 (2016), pp. 1-22.
- \_\_\_\_\_. “이슬람국가(IS)의 이중적 이념 구축: 동원과 타자화의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9권 2호 (2019) pp. 101-126.
- 손주영. “급진주의 지하드관의 형성과 발전.”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6권 1집 (2006) pp. 27-58.
- 오윤성. 『범죄 메커니즘의 이해: 어떤 심리가 범죄를 일으키는가?』 서울: 더선, 2011.
- 오미영·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윤민우.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이해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동향.” 『국가정보연구』 제7권 2호 (2014) pp. 7-40.
- 이만중. “IS이후 국제테러정세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비.” 『한국테러학회보』 제10권 제3호 (2017) pp. 89-122.
- 이운호. 『범죄학』 서울: 박영사, 2007.
- 이주성. “미국의 대테러정책과 글로벌 지하디즘.” 『중동문제연구』 제17권 4호 (2018) pp. 1-28.
- 인남식. “ISIS 3년 현황과 전망: 테러 확산의 불안한 전조.”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4』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 pp. 1-30.
- \_\_\_\_\_. “ISIL 선전전의 내용과 함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16』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 pp. 1-32.
- 정상률. “마크디시의 살라피즘과 IS의 살라피 지하디즘.”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6권 제1호 (2016) pp. 151-188.
- \_\_\_\_\_. “Dabiq에서 사용된 용어 분석을 통한 IS의 이슬람주의 담론과 정체성 연구: 구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21권 1호 (2017) pp. 67-103.
- 정상률·이종화. “Dabiq에 나타난 IS의 칼리파제론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5권 제3호 (2015) pp. 1-42.
- 정육상.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외국의 입법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6호 (2009). pp. 279-310.

정육상. “테러집단 IS의 위협실상과 향후 전개양상 전망.” 『유럽헌법연구』 제18호 (2015) pp. 171-198.

차배근.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 서울: 나남, 2003.

최재훈. “이슬람급진주의와 지하드의 글로벌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0권 1호 (2010) pp. 145-167.

황병화. “아랍 스프링 이후 중동의 신 극단주의 등장에 대한 연구.” 『중동문제연구』 제15권 1호 (2016) pp. 35-118.

## 나. 국외문헌

Al-Hashimi, Husham. “ISIS 2020: New Structures and Leaders in Iraq Revealed.” Center for Global Policy, <https://cgpolicy.org/articles/isis-2020-new-structures-and-leaders-in-iraq-revealed> (accessed: May 24, 2020).

Baffa, Richard C. et al. “Defining and Understanding the Next Generation of Salafi-Jihadis”. *Perspective*, (2019), RAND Corporation.

Bandura, A. “Toward a Psychology of Human Agenc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 1 (2006)

Bandura, A. “Social Cognitive Theory in Mass Communication.” in Jennings Bryant and Mary Beth Oliver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Routledge, 2009.

Braddock, Kurt. *Weaponized Words: The Strategic Role of Persuasion in Violent Radicalization and Counter-Rad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Conti, Uliano. “Between rap and jihad: spectacular subcultures, terrorism and visuality.”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cience*, Vol. 12 (2017) pp. 272-284.

Cook, David. *Martyrdom in Isl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Cottee, Simon. “Jihadism as a Subcultural Response to Social Strain: Extending Marc Sageman’s “Bunch of Guys” Thesis.”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 23, No. 5 (2011) pp. 730-751.

Dalgaard-Nilsen, A. *Studying Violent Radicalization in Europe II: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Socio-psychological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2008.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SIS FILE Project.

Glaser, Daniel. “Criminality Theories and Behavioral Imag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1 (1956) pp. 433-444.

Glaser, Daniel. *Crime in Our Changing Society*. NY: Holt, Reinhart and Winston, 1978.

Greenemeiner, Larry. “The Drone Wars: 9/11-Inspired Combat Leans Heavily on Robot Aircraft:” September 11, 2011,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post-911-military-tech-drones> (accessed: August 23, 2020).

Kaczkowski, Wojciec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images of children in Islamic State’s Dabiq and Rumiyah magazines.” *Contemporary Voices: St Andrews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 No. 2 (2019) pp. 26-38.

Khan, Amil. “Al Qaeda’s New Front: Jihadi Rap, The suspected killer of James Foley represents a new, dangerous merger of gangsta hip-hop and Islamism.” *Politico*, August 31, 2014.

Klapper, J.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New York: Free Press, 1960.

Lippman, W. *Public Opinion*. Harcourt: Brace, 1922.

Mitew, Teodor E. and Ahmad Shehabat. “Black Boxing the Black Flags: Anonymous Sharing Platforms and ISIS Content Distribution.” *Perspectives on Terrorism*, Vol.12, No.1 (2018) pp. 81-99.

Miller, Walter B. “Lower Class Culture as a Generating Milieu of Gang Delin-



- quency.” in Wolfgang et al. eds. *Sociology of Crime and Delinquency*, 2nd eds. New York: John Wiley, 1970.
- Milton, Daniel. “Pulling Back the Curtain.” *CTC Report*, Counter Terrorism Center at West Point, 2018.
- Mironova, Vera. “Who Are ISIS People?” *Perspectives on Terrorism*, Vol. 13, No. 1 (February 2019), pp. 32-39.
- Oliver, Mary Beth and K. Maja Krakowiak, “Individual Differences in Media Effects.” Jennings Bryant and Mary Beth Oliver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Routledge, 2009.
- Pisoiu, Daniela. “Subcultures, violent radicalization and terrorism.” *Behavioral Sciences of Terrorism and Political Aggression*, Vol. 7 No. 1 (2015) pp. 1-2.
- Reed, Alastair & Haroro J. Ingram, “Exploring the Role of Instructional Material in AQAP’s Inspire and ISIS’ Rumiya.” e 1st European Counter Terrorism Centre (ECTC) conference on online terrorist propaganda, 10-11 April 2017, at Europol Headquarters, The Hague.
- Steed, Brian L. *ISIS: The Essential Reference Guide*, Santa Barbara: ABC-CLIO, 2019.
- Sunstein, C. R. *Republic.co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Sutherland, Edwin. “White-Collar Crimin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 (1940) pp. 2-10.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unterterrorism Committee, *Security Council Guiding Principles on Foreign Terrorist Fighters: The 2015 Madrid Guiding Principles + 2018 Appendix*. UNCTED, 2019.
- United Nations. “Letter dated 20 January 2020 from the Chair of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s 1267 (1999), 1989 (2011) and 2253 (2015) concerning Islamic State in Iraq and the

Levant (Da’esh). Al-Qaida and Associated Individuals, Groups, Undertakings and Entitie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848705> (accessed: August 8, 2020).

Vale, Gina. “Women in Islamic State: From Caliphate to Camps.” *ICCT Policy Brief*. The Hague, 2019.

Wilson Center, “Timeline: The Rise, Spread, and Fall of the Islamic State.” [www.wilsoncenter.org](http://www.wilsoncenter.org) (accessed: May 13, 2020).

#### 다. 뉴스 및 기타

두산백과사전.

산업연구원 신윤성 신남방정책실장 간담회.

하채림. “우즈벡 출신 시리아 알카에다 계열 조직원, 대거 한국행 시도.” 연합뉴스. 2019. 2. 14, <https://www.yna.co.kr/view/AKR20190214046900108?input=1195m> (검색일: 2020. 3. 21)

한국외대 이수정 강사 이메일 면담.

Islamic State. “The Essential Duties of the Media Mujahid.” Pamphlet.

Payne, Ed and Jason Carroll. “The terrorist recruiting crossroads: Where jihad meets rap.” 『CNN』. January 13, 2015.

START Center, “Global Terrorism Database (GTD)™ 2020 Update.” <https://www.start.umd.edu/global-terrorism-database-gtd-2020-update> (accessed: July 15, 2020).

Wu, Jin, Derek Watkins and Rukmini Callimachi. “ISIS Lost Its Last Territory in Syria. But the Attacks Continue”. 『New York Times』. March 23, 2019.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9/03/23/world/middleeast/isis-syria-defeated.html> (accessed: August 23, 2020).

INSS 연구보고서 2020-9

## **ISIS의 미디어 전략과 테러 담론**

**발행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인** 김기정  
**주소** 06295 서울시 강남구 연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전화** 02-6191-1000 (Fax. 02-6191-1111)  
**홈페이지** <http://www.inss.re.kr>  
**인쇄일** 2020년 12월  
**발행일** 2020년 12월  
**편집**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ISBN** 979-11-89781-34-7(94340)  
979-11-89781-03-3(전18권)  
**가격** 비매품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